

The 21th KOREA
WOMEN'S
LEADERSHIP
AWARD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한국의 여성지도력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이 올해로 21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온
여성 리더를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YWCA 대강당(4층)
시상부문 대상·젊은지도자상·특별상

 (사)한국YWCA연합회  한국씨티은행

한국 YWCA

2023년 9·10월호
SEP · OCT Vol.586

기획 |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

탈핵기후생명은등 전국중점운동으로 정해
지역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한국YWCA
2024-2025 한국YWCA운동 및 운영정책(안)

줌·인 | 기독교 청년기후정의학교

기독교 청년은 왜 기후정의를 말해야 하는가?

이슈 포커스

2023 양성평등임금의날 워크숍

특집 |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안동 054.854.5481
(사)거제 055.682.4950	(사)안산 031.483.6536
(사)고양 031.919.404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광명 02.895.1966	(사)양산 055.367.1144
(사)광양 061.762.0012	(사)여수 061.654.2161
(사)광주 062.609.1300	(사)울산 052.247.3520
(사)군산 063.462.4491	(사)원주 033.742.6090
(사)김해 055.332.6000	(사)의정부 031.853.6332
(사)남양주 031.577.7762	(사)익산 063.857.8910
(사)남원 063.632.7002	(사)인천 032.424.0524
(사)논산 041.736.7393	(사)전주 063.224.5501
(사)대구 053.652.0070	(사)제주 064.711.8322
(사)대전 042.254.3035	(사)제천 043.645.2580
(사)동해 033.531.3007	(사)진주 055.755.3463
(사)마산 055.246.8746	(사)진해 055.542.0020
(사)목포 061.242.161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산 051.441.2221	(사)천안 041.575.0961
(사)부천 032.668.9700	(사)청주 043.265.3700
(사)사천 055.833.2344	(사)춘천 033.254.4878
(사)서귀포 064.762.1400	(사)충주 043.848.3240
(사)서울 02.3705.6000	(사)통영 055.646.2547
(사)성남 031.708.2503	(사)파주 031.945.5998
(사)세종 044.865.2432	평택 031.651.7701
(사)속초 033.635.3523	(사)포항 054.274.4444
(사)수원 031.252.5111	(사)하남 031.793.7771
(사)순천 061.744.7990	





제27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대상

- **TV 프로그램:** 지상파, 위성, 케이블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 **뉴미디어 콘텐츠:** 온라인 기반의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OTT 등 동영상 재생 가능 플랫폼

추천 분야

- **드라마, 예능 다큐, 교양 등의 모든 방송 유형**
2022.10.01~2023.10.30 방영된 프로그램
2023.10.30일까지 2/3 이상 방영된 프로그램

추천 내용

- **성평등 부문:**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잘 그려내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
- **생명 부문:**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을 모색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높인 프로그램
- **정의·평화 부문:** 남북통일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평화가치 구현에 기여한 프로그램
- **청년 부문:** 청년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기여한 프로그램,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년 세대와 다른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정신을 담은 프로그램

추천 기간

- **추천 기간:** 11월 03일(금)까지
- **추천 방법**
 - ① 구글 폼에서 작성 (<https://buly.kr/APrROkO>)
 - ② 포스터 하단 QR코드 통해 추천서 작성



심사 및 발표

- **심사:** 서류심사, 영상물 심사
- **발표**
 - 1차. 11월 10일경 (홈페이지 게시)
 - 2차. 11월 20일경 (개별 연락)

시상식

-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 **장소:** 한국YWCA 페이지명동 (예정)

문의

한국YWCA연합회 미디어소통팀
☎ 02.774.0230
✉ ywcapr@daum.net

2023.9.10 한국YWCA



표지이야기

923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에 연합회를 비롯한 13개 회원YWCA가 참여했다. Y-틴 30명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진에서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시대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평등 기후정의'를 외쳤다.

2023년 11·12월 주요일정

- 11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 11월 12일~18일 YWCA YMCA 국제친선 기도주간
- 11월 16일 2023 YWCA-YMCA 세계기도주간 연합예배
- 11월 18일 제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 11월 23일 제21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11월 27일~12월 1일 제30차 YWCA 세계대회
- 12월 1일 소비자의날 기념식
- 12월 7일 2023 성탄축하예배
- 12월 7일 제27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제59권 제4호 통권 586호

2023년 10월 25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정소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지금 여기, 하나님나라 정의 이루는 YWCA회원공동체 | **고미연**
- 05 **월례기도회** 준비같은 자매애 | **손은정**
- 기획 |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
- 06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국중점운동으로 정해
- 08 지역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한국YWCA
- 09 2024~2025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안)
- 중·인 | 기독교청년 기후정의학교**
- 11 기독교청년은 왜 기후위기를 말해야 하는가? | **김수진**
- 14 **성평등** 민주주의와 총선,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 **김은주**
- 16 **평화**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성과와 과제 | **나핵집**
- 18 **소비자 운동**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피해예방 | **안정희**
- 20 **청년토크** 내 친구 은둔청년 이야기 | **대학·청년Y**
- 22 **핵오염수 현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와 식품방사능 검사의 사각지대 | **김혜정**
- 이슈 포커스 | 2023 양성평등임금의날**
- 23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적은 임금 안돼 | **이한빛**
- 24 지역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 **김난주**
- 특집 | 2023 반핵아시아 포럼**
- 28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 **유에스더**
- 30 인근지역보다 암발생 44% 높아, 경주 월성원전 주민 투쟁 | **이상홍**
- 32 밀양에서 대만까지, 탈핵은 연대를 타고 흐른다 | **남어진**
- 34 핵발전소에 갇힌 울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막아내자 | **이현숙**
- 36 **이달의 현장 ①** 청소년이 말한다, "지구는 한 개, 기후는 한계" | **편집실**
- 38 **이달의 현장 ②** 함께하는 우리, YWCA 중견실무활동가 | **이수진**
- 40 **이달의 현장 ③** 923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는 곧 탈핵이다 | **유에스더**
- 42 **YWCA변화와 혁신15** 체제 전환에서 체질 전환으로 | **조은영**
- 45 **이 한권의 책** 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 거버넌스 | **김유리**
- 46 **복지사업단 일본연수** 2023 일본노인주거시설 및 도쿄국제홈케어 재학박람회 | **배정미·윤수정**
- 48 **세계YWCA 소식** 평화를 옹호하고 점령에 맞섭시다 | **팔레스타인YWCA**
- 49 **연합회 소식**
- 56 **회원YWCA 소식**

지금, 여기 하나님나라 정의 이루는 YWCA 회원공동체



고미연

(사)한국YWCA연합회 이사, (사)제주YWCA 회장

가을바람이 불고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이 되니, 제주YWCA에서는 올해 YWCA 활동들을 평가하고 내년 YWCA 활동을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YWCA 운동정책에 따라 2024년 운동 방향과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YWCA는 2년마다 YWCA운동과 운영 정책을 결정한다. 각 지역 YWCA는 YWCA운동 정책과 운영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운동 방향과 세부 방법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YWCA정책협의회에서 2년간의 한국 YWCA운동과 운영정책이 최종 결정된다.

이런 논의의 과정 중에서 과거의 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지?' 하며 예산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제주지역은 핵발전소도 없고 핵과 거리가 먼데 탈핵운동을 해야 할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만 골라하자'며 YWCA운동을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하려고 했다.

현 정부 하에서 우리가 하는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청소년, 평화통일운동의 과제들이 정치적 이슈에 역이용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오해로 후원자들이 줄기도 하고 주무관청의 굵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YWCA 운동에 제약이 되기도 하다 보니 최소한의 운동만 하려고도 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YWCA 목적문에 나타나 있는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활동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다.

올해 10월도 한국YWCA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4-2025년 한국 YWCA운동과 운영정책을 결정한다. 우리가 한국


YWCA에 모인 것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활동들인지 열심히 기도하고 토론하며 결정하여야 한다.

내년 YWCA 활동을 계획하는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은 YWCA 활동 계획을 세울 때 먼저 <한국YWCA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를 묵상하기를 추천한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공동체,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활동가가 되기를 기도한다.

“YWCA는 회원운동체이다.”

한국YWCA 100주년 비전문에 'A(Association)-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대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고 했다. 하나님의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 건설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야 한다.

지난 봄 회장단 연수 때 참석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Y활동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선물은 '헌신적인 이사, '몰려드는 회원',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등의 순서로 모두 회원운동체에 관한 것이었다. 고액 기부자, 넓은 활동 공간 등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YWCA가 회원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YWCA 활동을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회원으로 후원자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을 나누고 실천을 함께 하다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단비같은 자매애

누가복음 1장 39-45절, 56절



손은정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임신한 두 여성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정상성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고, 또 한 명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눅1장 56절에 보면 두 여성은 3개월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이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밥을 해 먹고 차를 마시며, 불쑥불쑥 찾아오는 노산과 초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나누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면, 그 염려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두려움에 서로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점점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찬가로 (눅1:46-55)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단비같은 자매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들이 함께 연합하면 놀라운 역사를 잉태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번 달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태원 참사로 딸을 떠나 보낸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1주기를 앞두고 마음이 어떤지 조심스레 물었고 소망을 여쭙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떠난 것의 사회적 의미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생명안전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그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과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인권과 예의가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날 살아남은 청년들에 대한 치유를 교회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이

들이 자신을 감추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교회에 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요즘 점점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옆에 와서 손만 잡아줘도 좋아요. 같이 리본을 만들어 주면 더 좋고요. 아직 2차 가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리본 바구니를 엮고 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돌아오는 1주기 추모제 때는 시간 내서 많이 와 주시면 힘이 되겠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은 주님께 하는 것(마25장)이기도 합니다.

YWCA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기관보다 앞서서 생명을 품고 지키는 소명에 있어서 탁월했고 전국적 뿌리와 기반이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그 소명을 실현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말씀과 성령이 단비와 같듯, 이 절망적인 시대에서 자매애는 단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내었습니다. 마지막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당당한 여성들입니다. (아 6:10) 백성을 안전하고 평화롭게(미 5:4-5) 이끌 위엄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과 반역사적으로 퇴행을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는 유가족들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유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잠들어 있는 정부와 교권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기도요, 참된 사랑입니다. 

탈핵기후생명운동 전국중점운동으로 정해

지역특화운동으로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운동 전개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는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2년간 탈핵기후생명운동과 전국공통과제 YWCA RE100운동 실행평가 후 한국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2024-2025 YWCA 운동 및 운영정책을 제안하였다. 정책협의회에 모인 170여 명의 회원들은 2024-2025에도 정의·평화·생명 가치와 시대정신에 발맞춰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채택하고 지역특화운동으로 성평등, 평화·통일운동, 청(소)년 운동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2023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10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YWCA 정책협의회는 2022-2023 YWCA의 운동 및 운영정책을 평가하고 2024-2025에 전개할 운동 및 운영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한국YWCA연합회와 50개 회원YWCA의 정책협의 대표단(각 회원YWCA의 회장, 사무총장, 실무자 등으로 구성) 등 총 17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YWCA 운동과제 세미나와 2024-2025 YWCA 운동 및 운영 정책제안, 광역시 및 YWCA 도협의회별 협의와 발표 시간을 가졌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정책협의회 첫 순서인 <YWCA생명살림을 위한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가 말씀을 선포했다. 기도회 설교는 현재와 같이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메타노니아(repentance 회개라는 뜻)'의 삶을 위해서는 힘과 권력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생명존중과 연대의 정신으로 상호의존의 창조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운동과제 세미나에서는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소센터) 대표가 기조발제 '정부 에너지정책과 YWCA 중점운동'에서 한국의 에너지 현황 및 세계 에너지정책 흐름과 시사점을 짚으며,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살펴보았다. 2024-2025 탈핵기후생명운

동 분야의 YWCA중점운동 과제 중 하나인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역별 제안도 다루었다. 이어진 YWCA운동 사례발표 시간에서는 '고양YWCA 기후정책 모니터링'(발표: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청주YWCA RE100 운동'(발표: 청주YWCA 이해정 사무총장), '부산YWCA 고리2호기 폐쇄운동'(발표: 부산YWCA 김정환 사무총장), '대전YWCA 우리학교 에너지 탐험대'(발표: 대전YWCA 노은정 국장) 등 회원YWCA 운동 사례를 공유하였다.


오후 시간 세션인 'YWCA운동 및 운영 정책 제안'에서는 지난 5월 연합회 법인이사 워크숍에서 2022-2023 정책평가와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한 후 전국 사무총장확대운영위원회 협의와 전국 회원YWCA의 설문조사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2-2023 YWCA 운동 및 운영정책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2024-2025 YWCA 운동 및 운영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 운영정책은 조은영(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이사가, YWCA 운동정책은 이은영(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이사가 각각 발표하였다.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 제안의 기본 방향은 ▲한국YWCA 목적문에 명시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 전개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지속 전개 ▲지역운동 강화 ▲시민운동 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됐다.



끝으로 광역시·도협의회 협의에서는 YWCA 중점운동 전개를 위한 '2024년 광역시·도협의회 주력과제 선정'을 위해 도협의회별 소모임과 광역시협의회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4-2025년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특화운동으로 광역시·도협의회별 지역운동에 대한 총 10개 그룹의 논의 발표도 이어졌다. 이렇게 2023 한국YWCA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2024-2025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 제안은 2024년 2월에 개최되는 한

국YWCA 정기총회에서 전국 51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대표가 모인 가운데 확정하게 된다.

긴 시간 이어진 정책협의회에서 참여자 모두는 YWCA가 기독교시민여성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4-2025 전국중점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 과 각 지역의 특화운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며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지역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한국YWCA

한국YWCA는 지난 2021년 정책협의회와 2022년 총회 결의를 통해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공통과제로 YWCA RE100운동을 결의했다.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들의 실천에서부터 지역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정부에 정책을 촉구하기까지 지역과 중앙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운동인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을 통해 운동의 지평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 속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활동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를 넘어 국제적 행동을 확산해왔다.

한편, 지난 2년간 연합회와 회원YWCA는 힘을 합쳐 한국YWCA 재구조화의 여정에 박차를 가했다. 연합회는 회원YWCA의 재구조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고, 회원YWCA 역시 구조 전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재구조화 추진 49개 회원YWCA 모두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각 회원YWCA는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지역 운동 조직으로서 성장해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책 제안의 배경

2023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기후재난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되는 국제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수십 년 간 애써 이루어온 민

주시민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내년 4.10 총선이 실시되고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기술발전(AI발달)에 따른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하고 저출생 및 초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더해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식과 깨어있는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그러므로 2024~2025년의 YWCA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경시하고 훼손하는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자 한다. YWCA는 건전한 사회로 변화를 촉구하며, 많은 회원과 시민들, 특별히 청년들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 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정부와 시장과 NGO가 사회발전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촉구하고 견인하는 YWCA가 되는 것도 조직 운영의 또하나의 비전이다.

정책 제안의 기본방향

2024~2025년 한국YWCA정책 제안의 기본 방향은 1)한국YWCA 목적문에 명시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 전개 2)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지속 전개 3)지역운동 강화 4)시민운동 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다.

하나님나라 운동의 가치인 정의·평화·생명과 시대정신에 따라 YWCA가 전개해 온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4대 운동 영역을 유지하고, 전 지구적 이슈이자 현 시대 모든 사회적 현상들과 연관된 기후위기 대응, 핵발전

2024~2025 한국YWCA 운동정책(안)

주제 :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비전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의로운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사회 구축
중장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핵탈석탄 운동을 통한 에너지전환 사회 기반 구축 2 회원YWCA와 지역사회가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 3 탈핵기후생명운동 시민실천가 양성 5만 명 : 청(소)년 10%이상 4 성평등 관점의 기후에너지정책 수립

전국중점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및 신규 석탄화력 건설 백지화 - 지역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절약운동 - 성평등 관점의 기후에너지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기준 및 방사능급식 조례 제정 운동 2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촉구 -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모니터링(성인지 예산 등) 3 탈핵기후 관련 시민 의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핵기후 교육 및 캠페인 - 탈핵기후 이슈 대응(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등) -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제로웨이스트 운동,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


지역특화 운동	성평등운동	평화 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목표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한다.	일상 속에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참여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기반을 마련한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역할을 획득하고 주체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 -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 국회 여성 동수 실현 2 젠더 기반 폭력 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근절 관련 법안 및 정책 제안 활동 3 성평등운동 주체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실시 - 기독여성주의 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인식과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촉진 (중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 시민 평화·통일 교육 및 캠페인 2 평화·통일 분야의 여성·청년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안보·평화·통일 정책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 촉구 - 동아시아 여성·청(소)년의 평화 활동 연대 구축 -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및 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회원 확보 및 리더십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가 리더십 발굴 - 청(소)년 자치활동 지역조직 확대 2 지역 청(소)년의 주도적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 운동의 이슈 발굴 및 실천 활동 3 지속가능한 청(소)년 운동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운동 담당활동가 역량 강화 - 청(소)년운동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2024~2025 한국YWCA 운영정책(안)

한국YWCA 조직운영	
비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독교시민운동단체
중장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YWCA 본부 재정의 회비기부금 비율 50% 이상 확보 2) 활동회원 5,000명을 시민활동가로 양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운영 역량 강화 2)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3)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YWCA 활동가 운동역량 강화 4)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반 마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회원정책 연구 및 수립 2) YWCA 활동회원(정·준회원, 청소년회원) 활동성 강화 3)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소모임 조직 활성화 4) YWCA 후원회원 확보 2) 청년리더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운동과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 참여 확대 2) 청년 주체 운동모델 개발 3) YWCA 지역운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YWCA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운동역량 교육 2) YWCA 지역운동 개발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별 정책 연구 3) YWCA 지역운동 개발을 위한 광역사도협의회 연대 강화 4) YWCA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교육 2) YWCA 법인운영 공통매뉴얼 제작(회계, 세무, 노무, 법무 등) 3) 공익법인 컨설팅 기능 강화 4) 회원YWCA 본부의 부속시설 관리(감독) 강화 5)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YWCA 본부 자체 재원 확대 2) 모금 프로그램 개발 3) 수익사업 모델 개발 6) YWCA 연합구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합회-회원YWCA 연대와 협력 강화 2) YWCA 브랜드 관리 및 정체성 강화

로 인한 부정의한 에너지를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중점운동으로 전개한다.

특히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YWCA는 지역법인의 기반 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주요 의제를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회원YWCA가 찾아내고 촉구하는 지역운동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YWCA는

대중시민운동 조직으로서 시민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에 관심 갖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고 서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기독교청년은 왜 기후위기를 말해야 하는가?

|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팀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연합회,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데나리온 은행,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기독교청년 기후정의학교'가 2023년 8월 24일(목)부터 온오프라인 강연, 간담회, 현장기행으로 진행됐다. 기후정의를 고민하는 기독교청년들과 함께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청년들이 왜, 어떻게 기후정의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한국YWCA 청년운동팀은 9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군산 수라갯벌을 주제로 한 현장기행 운영을 맡았다.

기독교청년은 왜 기후위기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작년 '기후빈곤심포지움'에 이어 기독교청년들이 기후정의를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바람이 올해 '기독교청년 기후정의학교'로 이어졌다.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 기독교청년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획됐다. 3회의 강연은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8월 24일(목), 31일(목) 향린교회, 9월 9일(토) 성민교회에서 진행됐다. 장운재 교수(이화여대)가 '기독교청년이 왜 기후정의를 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이 기후정의학교의 시작을 열었다. 두 번째 강연으로는 강은빈 활동가(청년기후긴급행동)가 '기독교청년은 어떻게 기후위기를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어갔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기후정의 활동가이자 독립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철 활동가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의 현실을 알렸고, 강연 후에는 맨몸으로 기후위기를 살아내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간담회¹⁾를 가졌다. 9월 15일(금)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현장기행은 신공항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수라갯벌에서 진행됐다. 황윤 감독의 영화 <수라>를 관람하고, 오동필단장(새만금시민생태조

사단)과의 GV²⁾를 통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군산에서 평화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구중서 집행위원장(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과 함께 수라갯벌을 직접 탐방했다.

수라갯벌의 '아름다움을 본 죄'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 갯벌로 돌아간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 <수라> 영화에서 오동필 단장의 대사이다. '새만금'은 전북 부안-김제 사이의 무수히 많은 작고 큰 갯벌들의 이름을 덮어버린 이름이다.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의 '수라'는 실제 지명이 아니다. 갯벌 인근 남수라마을에서 가져와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에 붙인 이름이다. 새만금 사업은 강박적 개발욕구에 시달리던 시절 결정된 광기어린 개발사업이다. 또한 개발담론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갯벌과 생명의 가치는 사라진 채 정치권의 희망도구, 전북민심 달래기용 정치도구로 전락했다. 1991년 착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시작되고를 반복. 2003년에는 네 명의 성직자³⁾가 새만금갯벌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에 나섰다. 여러 우여곡절 겪던 새만금

1) 3회차 강연과 간담회의 모습을 담은 뉴스(GOODTV NEWS): '기후위기 피해, 왜 경제 빈곤층이 떠날아야 하나' (뉴스영상 링크주소: <https://youtu.be/-4LqJ0Zxu7M?si=Wmf1wjZ-RWerLZHpl>)
 2) GV(Guest Visit): 해당 영화의 감독, 배우, 스태프 제작에 참여한 자를 초대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
 3) 불교 수경 스님, 천주교 문규현 신부, 개신교 이희운 목사, 원불교 김경일 교무



참가자들이 수라갯벌을 걷고 있다.

은 결국 2006년 국가 추진의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판결이 나온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진행됐고, 영화 <수라>의 황윤감독은 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갯벌을 기록하기 위해 2006년 전북 부안 계화도 갯벌을 찾았다. 촬영을 하고 돌아온 지 한 달, 새만금과 치열하게 싸웠던 여성 어민이자 황윤감독의 카메라에 담졌던 동료 류기화 씨가 갯벌에 나갔다 세상을 떠났다.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 불규칙한 배수갑문 조작으로 참변을 당한 것이다. 황 감독은 새만금과 갯벌을 기억에서 지웠다.

황윤 감독이 다시 새만금을 마주한 것은 2014년, 군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우연히 오동필 단장을 만나서부터였다. 황 감독은 오 단장을 따라 수라갯벌에 가게 된다. 그날 멸종위기종 저어새 150여마리를 만나고, 황 감독의 기록은 다시 시작됐다. 촬영은 7년 동안 이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수라>다. 작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연한 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장편 경쟁부문에서 '관객상'을 받았

다. <수라>는 관객 주도의 영화 상영으로도 이슈가 됐다. 이른바 관객이 극장을 대관하는 '100개 극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관객이 주도하여 100개가 넘는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은 독립예술영화 개봉 사례로 이례적인 일이다. 한겨레 인터뷰에서 황 감독은 "새만금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⁴⁾라고 <수라>를 소개했다.

'수라갯벌'이라고만 들었을 때 동네 앞바다 갯벌 정도겠거니 싶었지만, 실제 영화 <수라>에 담긴 장면들은 광활했다. 여러 생명의 아름다움이 화면 가득 담겨있었다. 수라갯벌과 함께 2003년부터 활동해온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활동도 영화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전문가도 어디서 월급을 받는 활동가도 아닌, 각자의 삶과 바쁜 생계 속에서 20년동안 갯벌을 지키고 기록해온 사람들이었다. 오동필단장(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자신의 활동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운 것을 본죄'. 그는 수라갯벌의 아름다움을 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 황 감독 또한 '죄인'이 됐다. 보기만

4) 김은형 기자, '세 10만 마리 춤추던 황홀경,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기억하려고...', 한겨레, 23.06.29,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97960.html



수라갯벌에서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참가자들(왼쪽). 기독교청년회기후정의학교 포스터(오른쪽).

한 것이 아니라 새들의 소리를 듣고, 갯벌을 걸으며 냄새를 맡고 발로 부드러운 감촉을 느꼈기 때문에 황 감독은 수라갯벌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수라>를 본 우리들은 획 획 바람을 가르는 생명의 날개짓에 가슴이 미어지고 멍멍해졌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것을 본 죄인'이 됐다.

새만금에 이어 신공항까지

현장기행의 마지막날. 우리는 폐박스를 뜯어 만든 피켓을 들고 수라갯벌 연습지로 들어갔다. 직접 눈과 발로 만난 수라갯벌은 영화로 본 것과 다른 장면이었다. 죽어버린 조개무덤도 있었지만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게, 물고기 그리고 먹이 사냥을 하는 새들이 곳곳에 보였다. 예민해서 보기 힘든 '저어새' 무리도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수라갯벌을 맨발로 걸으며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만금사업은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었다. 2만명이 넘는 어민들이 일터를 잃었다. 갯벌 생태계 또한 파괴됐다. 새만금에서 이미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동안 마지막으로 남은 수라갯벌마저 '새만금신공항' 예정지가 됐다.

새만금신공항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보고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6월 펴낸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새만금 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결과 0.479의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즉 100원을 투입하면 47원만 건질 수 있는 적자 사업인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육지화'된 땅이라고 주장하며 갯벌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발견된 법정보호종만 48종, 천연기념물은 23종이 서식하는 곳이다. 이산화탄소의 흡수로 기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갯벌을 없앤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배출 억제라는 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갯벌을 없애는 데는 고작 몇 년이 안걸리겠지만, 자연적으로 갯벌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약 8,0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세상 모든 '수라'를 위하여

가장 멀리 이동하는 철새 도요새는 장거리 비행 중 중간 기착지로 새만금 갯벌에서 쉬어간다. 새들의 하나뿐인 휴게소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도요 새는 쉼 곳을 잃었고, 붉은어깨도요는 전 세계 개체수의 20%가 줄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을 찾는 생명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 꼬마물떼새,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40여종이 살고 있다. 모두가 새만금은 끝났다고, 갯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수라갯벌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그 숨과 생명을 위해 그 흔적을 기록하고 그곳을 지키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의 '수라'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민주주의와 총선, 여성은 무엇을 할 것인가?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장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민주화의 촉구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정책이나 리더십의 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불평등을 강요한다. 엄연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도 능력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제22대 국회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의 민주정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

헌/법을 민주주의 위기와 아만적 자유 '고치다'

지금의 위기는 20세기의 독재정치로 야기된 위기와 다르다. 민주주의에 맞서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전체주의적이고 반민주적 행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배반이라는 점에서 그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우후순순으로 사이버공간에 생기는 인터넷 신문들은 경제적 이득과 직결된 클릭(click)수를 늘리기 위해 거짓과 혐오를 담은 가짜뉴스들을 생산한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범죄적 행위들을 정당화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표현물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온갖 욕설과 비속어들이 정의의 언어를 대체했다.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단식투쟁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폭식 집회를 열고, 자유란 이름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행동들을 거침없이 자행한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은 능력의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금수의 행위와 같은 '아만적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을 정치권에서 방조하고 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득표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더 극심해진다. 민주주의의 지킴이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국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반정치적이고 비민주적인 언행들을 자행한다. 이런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저 4년 계약직으로 경제적 이익을 탐해 들어온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 모두의 '평등한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21대 총선과정은 우리 정치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속임수 정치의 끝판왕이었다.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제대로 반영된 의회를 구성하고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양극화된 정당정치에서 배제된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존의 양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20대 국회보다 더 기형적으로 양극화된 양당정치 구도를 만들어버렸다. 양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의 의석은 제20대 국회의 55석에서 17석으로 1/3수준으로 급감했다. 소수정당의 몫으로 기대되었던 연동형 비례의석 '30석'마저도 거대 정당의 위

성정당들이 나눠가짐으로서 신생정당은 차지하고 기존의 제3정당인 정의당도 무력화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 중에 여성 거대정당이 선거용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의회민주주의의 지킴이어야 할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반쪽짜리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당 간의 합의와 2년 여에 걸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했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합의의 결과였다. 이런 합의를 깬 거대 양당은 신뢰와 합의를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킨 행위였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사람의 민주적 리더십이 결합할 때 발현할 수 있다. 민주적 제도 없이 사람의 리더십만으로도 그리고 민주주의자의 리더십 없이 제도만으로도 민주주의는 성장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이미 여론조사, 간담회, 공론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정작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회전을 하고 있다. 속내야 뻔히 알고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얼굴을 닮은 의회여야 한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준' 연동형이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위성정당의 출현은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아니라 당리당략에 눈이 멀었던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였다.

동수민주주의를 향한 여성들의 분투


1995년 북경 유엔세계여성대회 이후 2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세계의 여성정치는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동 대회에서 여성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여성정치세력화 전략의 채택은 세계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11.3%에서 24.9%로 증가시켰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 중 가장 놀라운 것은 1999년의 프랑

스의 남녀동수(parity)헌법 개정이었다. 각급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각각 50:50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조항의 신설이었다. 게다가 남녀동수는 단수 30%에서 50%로의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남녀동수헌법은 여성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적극적 조치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전환시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로서 일정한 수의 여성 대표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의 동등한 주권자로서 남성과 같은 수의 여성 대표성을 선언한 것이다.

남녀 동수는 이제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평등한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이고 도전적인 규범이 되었다. 일국적 단위에서의 동수가치의 헌법적 규범화 흐름과 더불어 유엔 여성기구(UN WOMEN), IPU 등 국제사회에서도 동수의 회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엔 여성은 2030년까지 동수의회구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각 국가와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총선 결과, 우리의 여성의원원은 제20대 국회에 비해 2% 증가한 19%에 머물렀다. 우리도 지난 25년 동안 여성의원원의 비율은 2%에서 19%로 증가했지만 우리의 변화는 너무나 느리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성단체들은 다시 힘을 모아 제22대 국회의 동수의회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젠 여성할당제가 아니라 한 성이 적어도 40% 이상은 공천받도록 하는 남녀동등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최근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대남/이대녀나 페미/반페미" 같은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이 22대 총선과정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대 정당 압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양/성평등실현과 여성권의 향상을 위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동수헌법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제22대 여성의원들은 이를 위해 분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민주주의자이어야 한다. 유권자로서 우리 개개인은 이런 능력을 가진 여성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제22대 국회로 보내야 한다.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성과와 과제

| 나해집

한국교회종전캠페인본부장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은 멈추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쟁을 끝내지 않고 70년의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20년부터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 9월까지 종전 캠페인을 벌여 그 결과를 가지고 UN에 전달하고 관련당사국(남, 북, 중, 미)과 유엔 대표부와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명 운동과 함께 전 세계 300여 곳에서 평화행동이 진행되었다. 지난 3년여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국, 내 외에서 206,629 명이 참여 했다. 평화행동 대표단은 이 서명용지를 가지고 지난 9월29일 미국으로 향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은 쉽지 않았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람들은 서명을 위해 볼펜을 잡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었다.

종전 캠페인에는 21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참여했고 지자체장들과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서 세계교회협의회 의 의장과 총무 교회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등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들이 줄지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다.

세계평화를 위해 힘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가운데서 리 마 보위, 시린 에바디, 시타우왁쿨 카르만과 WCC(세계교회협의회)에 사무실을 둔 핵무기철폐 국가 캠페인을 진행을 해

오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ICAN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토마스 쿤타나도 서명에 동참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뉴욕 교민과 평화집회 참여

뉴욕과 워싱턴에서 각각 동포간담회 진행

우리 일행은 맨 먼저 뉴욕의 교민들과 함께 하는 평화집회(Korea Peace Rally)에 참여했다. 평화집회는 뉴욕 맨하탄의 합마술드 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유엔본부 근처에 있는 이 공원의 이름은 유엔2대 사무총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공원이다. 합마술드는 노벨평화상도 받았다.

하루 전에 엄청난 비가 내려 모두가 걱정했다. 그러나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그치고 평화대회를 하는 일에 지장이 없었다. 공원에 모인 교민들은 뉴욕을 중심으로 인근 각처에서 몰려왔다. 비행기를 타고 참여한 교민들도 있었다. 멀리 이국땅에 살고 있지만 조국의 평화를 위해 얼마나 갈망하는지 집회 내내 느낄 수 있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한 마음으로 외치고 또 외쳤다. 합마술드 광장에서 유엔본부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목청껏 외쳤다.

무엇을 원하느냐? 평화! 언제? 지금 바로! 평화대표단과 교민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외쳤다. 이 집회에 중국교포들이 많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뉴욕의 우리교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 미 시민사회 전략 워크숍도 가졌다. 한반도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평화대표단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두 번에 걸쳐 동포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종전캠페인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했고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함께 공유했다. 동포들이 흩어져 살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뭉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우리의 방문은 유엔이나 대표부에 그간의 성과물을 가지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호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포사회에 한반도 상황을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일도 중요한 일종의 하나였다. 우리 대표단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과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나눴다.

78차 유엔총회 중 유엔본부와 한국대표부 방문 종전서명용지 전달

대표단은 제 78차 유엔총회 중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제 1위원회가 진행 중인 유엔본부를 방문했다. 유엔 사무처를 방문해 그동안 종전서명을 받은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이 서명 속에 담긴 20만 명이 넘는 분들의 마음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잘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남, 북 정부 간의 대화와 민간 남, 북 교류협력의 재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유엔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방문하여 김상진 차석대사를 면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식만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는 일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전달했다. 평화는 무기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는 인명을 살상하고 모든 파괴하는 악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우선 접근법(Peace First Approach)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군 중립감독위원회를 맡고 있는 주유엔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부들을 만났다. 생각보다 한반도 상


황을 잘 알고 있었고 남, 북한 정부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대표부에는 내년에 스웨덴에서 열리는 세계감리회대회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할 때 비자 문제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줄곧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적대를 멈추고 남, 북, 북, 미 관계를 개선합시다.
-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 핵무기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시다.
- ▶ 재재와 군사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 ▶ 한, 미, 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한반도, 아시아 평화공존을 실현합시다.
- ▶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서명 운동에는 180 개국의 종교,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주었고 한반도의 평화의 염원을 지지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평화행동을 하는 중에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나 내심 안타까웠다. 한반도의 평화가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도 이런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새삼 가슴 깊이 다가온다. 평화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무기를 쓸모없는 고철로 만드는 일이다. 한반도에 있는 모든 무기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이루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날을 꿈꾸어 본다. 종교와 시민단체가 함께 했던 종전 캠페인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종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더 깊이 한반도의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 가느냐가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피해예방

|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비대면 거래를 촉진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코로나19 이후 TV홈쇼핑, 인터넷, 모바일, SNS쇼핑, 해외직구, C2C거래플랫폼쇼핑 등 디지털이용 소비경험은 82.1%에 이른다. 2001년에 3조원 규모이던 온라인 거래 규모는 2020년 160조원으로 5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하였다. 비대면 거래방식은 직접 상품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소비자와 사업자의 경계의 모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맞춤형 광고 등으로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켰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 소비자 피해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 한계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플랫폼 내에서 불법 행위(위해물품판매, 직거래유도, 위조품판매)와 소비자에게 피해(배송지연, 반품거부, 피해처리 불협조, 합의사항 이행거부, 조정 불수락 등)를 발생시키는 사업자(cellar)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지만으로 면책됨을 악용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에 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리하여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거래의 해결, 책임을 강화하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안을 2020년 9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온플법은 부처 간의 입장 차이와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에 따른 역차별의 문제, 관련 업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

다가 사실상 백지화되고, 새로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밝히며 온플법 논의는 ‘자율규제’로 전환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와 방안 마련

플랫폼 자율규제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이커머스 분야)은 쿠팡, 네이버, 지마켓, 카카오 쇼핑, 11번가 등, 배달 분야에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숙박 분야에서는 아놀자 등을 말한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2022년 8월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여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갑·을분과, 소비자·이용자분과, 데이터·AI분과,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로 조직하여 약 8개월간 운영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소비자·이용자 분과에 참여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함께 플랫폼 업계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5월에는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의된 각 분과별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3개 정부부처장, 소비자 단체장, 주요 플랫폼 업계 대표들이 모여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이 잘 진행되어 플랫폼 자율규제가 잘 작동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자율규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오픈



마켓·입점판매자간 계약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주요 변수 공개, 의무 및 이행점검 등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각 플랫폼 업체별 향후 계획 등이 발표 되었다.


소비자피해 예방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이용자 분과에서는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기 쇼핑물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차단 및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1372 상담 현황, 소비자피해예방 주의보, 민원다발쇼핑물 지정·공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오픈마켓에서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발견되는 경우, 소협이 이를 오픈마켓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오픈마켓 사업자별로 계약상 근거 마련을 위한 약관·정책서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기준 수립 및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오

픈마켓 및 관련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한 뒤 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하고 실무협의가 논의중이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과제

플랫폼 자율규제의 핵심은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누가, 어떻게 구축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를 실제로 이행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있어야만 자율규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만들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규제의 명시적인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부족해 보인다. 플랫폼 업체의 자율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설치 의무라든지, 피해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아쉽다.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에 우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 친구 은둔청년 이야기

| 대학·청년YWCA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어려운 청년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이번 청년토크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연락한 대학·청년YWCA 출신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개인의 고민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나는 물론 이번 청년토크를 함께 하기로 한 청년들도 모두 공감했던 이야기였다.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그의 이야기를 짧게 실는다. 이번 청년토크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청년들의 대화로 꾸었다.

행복, 27세

내 나이 27살,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고, YWCA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20대 초반을 보냈었다. 졸업 후 서울에서 첫 직장을 얻었다. 그곳에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어갔다. 퇴사를 한 지금,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는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가 아니면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나는 아주 작은일도 하기가 힘들다. 그걸 왜 못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남들이 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하지 못한다. 왜 먹고, 왜 자고, 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이 순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조금씩 노력해보고 있다.

내가 이곳에 나의 이야기를 실는 건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나 내 이야기를 들을 고립청년들에게 함께 이겨내 보자고 말 걸고 싶다. 많은 청년들이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이겨낼 방법은 아주 간단할지도 모른다. 우리와 함께 해줄 사회와 사람들이 필요하다.

다들 잘지내?

채채 : 이번 청년토크를 함께 할 친구들을 찾다가 자연스럽게 이번 청년토크 주제를 은둔청년, 고립청년으로 정하게 됐어.

게임 : 행복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다.

동굴 : 난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순간 속 밝고,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서 지금 너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나는 너네 모두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채채 : 그러게. 나도 가볍게 연락했다가 행복이 소식 듣고 너무 속상했어.

게임 : 나도. 평소에 자주 연락해서 안부 좀 물어볼걸.

동굴 : 그래도 지금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중이라 다행이야. 나도 자주 연락해야겠어.

게임 : 이참에 생각해보니 내 주변에도 은근 히키코모리¹⁾로 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채채 : 내 주변에도 사람들이랑 관계를 꺼려하고, 일할 때 아니면 바깥활동을 안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

게임 : 코로나19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배달도 잘되고,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더욱 고립되는 것 같아.

혼자가 편해

동굴 : 어느 순간 우리는 혼자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당연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채채 : 맞아. 예전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에서 소통



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상대를 깊게 알아가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게임 : 그래서 나도 고민이 있거나 일을 어려워하는 직장 동료에게 선뜻 선의를 베풀기도 고민돼.

동굴 :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 은둔청년인 것 같아. 지역에 살다가 서울에 취업하니깐 동네친구도, 가족도 없는데 동료들은 마이웨이 성향이라 일 끝나면 너무 외로워.

채채 : 그 기분 뭔지 알아. 나도 타지에서 직장생활할 초반에 너무 외로웠어. 내향적이라 다른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웠고. 난 혼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고립청년, 사회적 문제

채채 : 이번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니깐 2023년 5월 기준으로 ‘그냥 쉬었다’는 20대 청년이 35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2만 1000명보다 3만 6000명 증가했다.

게임 : 단순히 구직생활을 안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돼.

동굴 : 일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문장에 집중하면 안될 것 같아. 취업을 하지 못해서 고립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

채채 : 맞아. ‘그냥 쉬었다’라는 말에 주목하기 보다는 실패했다는 좌절감으로 고립돼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청년들을

생각해봐야할 것 같아.

게임 : 취업문제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불우한 가정사를 겪은 청년들도 고립되는 것 같아.

채채 :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불안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같아.

동굴 : 그런 청년들이 고립되기 전에 분명 전조증상이 있었을 거야. 최근에 청년청소년 우울증 환자도 엄청 많아졌다고 하잖아.

게임 : 청년고독사도 너무 많아졌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채채 : 찾아보니깐 요즘 서울 쪽에서는 고립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많대.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거야.

“대화가 필요해”

채채 : 행복이가 나에게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고 이야기해줬어. 우연이었지만 나의 연락이 탈출구 같았다는 말이 계속 기억나.

동굴 : 다행이다.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둔청년들이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결국 신뢰있는 인간관계 속 대화야.


게임 : 우리도 순간순간 우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때 주변에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공감해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아.

채채 : 그게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애인일 수도 있어.

게임 : 지금은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청년들도 예전에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중 하나였을 거야.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동굴 : 맞아. 지금의 우리가 또 내일의 은둔청년이 될 수도 있어.

게임 : 거창한 도움보다 고립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청년들이 그것들을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져야 해.

채채 : 고립청년문제 뿐만 아니라 청년우울증 등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질 필요가 있어. 

1) 히키코모리 : 히키코모리(일본어: ひきこもり)는 사회 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이다.[1][2]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한다. 출처 : 위키백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식품 방사능 검사의 사각지대

|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기후에너지정책학 박사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시작된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 기피현상이 늘어나면서 시중에서 ‘일본산’으로 표기된 수산물을 보기 힘들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지난 3년간 2020년 3만 218톤, 2021년 3만 2,460톤, 2022년 3만 8,294톤이 수입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의 비중은 방어·병어(100%), 능성어(99%), 명게(98%), 가리비(74%), 돔(62%), 가오리(46%) 등이다. 시중에 있는 수입산 방어·병어와 명게, 능성어는 거의 100% 일본산인 셈이다. 정부가 유통·판매와 모든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 1-8월 사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만 총 164건일 정도이다.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도 수산가공식품이면 원산지 표기 없이 수입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절대로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본

산 식품 방사능 관리의 여러 형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의 조치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외의 모든 식품은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일지라도 수산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초콜릿, 사탕, 차류, 사케, 통조림, 된장 등 모든 가공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산가공식품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젓갈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어육가공품류, 통조림 등이다. 수산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생선포나 냉동수산물의 경우 수산물로 분류되지만 양념 첨가물로 조미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품에 해당해 수입할 수 있다. 실제 원료의 생산지 표기 없이 냉동방어나 청어, 고등어 등이 100% 수산물임에도 단순 가공포장해서 횡감용 등의 수산가공품으로 수입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금지 현에서 총 659톤의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 그중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530톤으로 전체 수산가공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되었을 뿐 해당 지역의 원료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CBS 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등의 취재 결과,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된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포획한 연어알 가공품이 국내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국명’만 표기되기에 식약처조차도 가공품 원료의 생산지를 알 수 없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는 ‘국명’만 필수라서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 회사명과 주소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수 있다. 만약 A국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 어육가공품 등 수산가공품 등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원산지 표기는 A국이 되는 것이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현황(2011.3.14.-2023.5.30.)」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습 검출 사례는 199건에 이르렀다. 방사성 물질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초콜릿류에 이어 녹차, 횡감으로 수입한 냉동 방어·훈제 방어,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 일본산 된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세습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 해외직구 가공식품, 식약처 방사능 관리에서 제외

일본산 식품 방사능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는 또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해외직구 가공식품은 식약처 방사능 검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후쿠시마현 등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이라도 ‘일본산’으로 표기·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원료의 생산 지역도 모르고 방사능 검사도 하지 않은 식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쿠팡이나 해외 직거래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횡감용이나 초밥용 냉동수산물에서부터 청어알 조림, 일본된장, 각종 절임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일본산으로만 표기되어 유통되고 있다.

얼마 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한국은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식약처가 일본산 가공식품의 표기를 후쿠시마산으로 표기하지 말고 일본산으로 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식약처가 후쿠시마산 유통을 부추킨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온라인 유통 해외직구 식품의 방사능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식약처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

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라고만 하고, 정작 온라인 유통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관리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 주요 핵종에 대한 방사능검사 항목 부재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과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식품 방사능 검사항목에도 근본적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2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7, 플루토늄239 등 64개의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설비인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가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하는데다 알프스로 처리한 방사성 오염수의 72%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배출하는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제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삼중수소와 스트론튬90, 플루토늄 등 위험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식품 방사능 검사에는 오염수와 함께 해양 방출 될 삼중수소나 스트론튬90 등 주요 핵종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알프스로 정화했지만 기준치를 2만 배 초과한 스트론튬90의 경우 물에 녹기 쉬운 성질로 해저 침전물과 해양생물에 더 쉽게 유입된다. 몸속에 들어오면 뼈에 흡착해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독성이 매우 강한 방사성 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벨라루스 공화국은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스트론튬을 검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대는 후쿠시마 방사능 보고서에서 스트론튬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마련과 삼중수소와 스트론튬90, 플루토늄 등 방사능 검사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할 때이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적은 임금 안돼

이한빛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지난 9월 7일(목)은 국가에서 지정한 2023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었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매년 9월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양성평등 주간 중 목요일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3년 이래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요구하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한국 사회에 요구해 왔다. 한국YWCA는 '여성이기 때문'이 임금이 달라서는 안 되며, 직장을 그만두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약 10년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육아,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 외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관련하여 한국YWCA의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23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 및 22개 회원YWCA 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

국제 지표에 따른 한국 성별 임금격차 현황

성별임금격차 관련 여러 국제 지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되고 있지 않은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은 OECD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Economist's glass ceiling index),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등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먼저 OECD 연구 결과(2023)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이래 27년째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 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29개 국가 중 꼴찌이며, 11년째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유리천장지수의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은 '여성관리자 비율'과 '여성임원 비율' 지표에서 29개국 중 28등, '여성 의석수'에서는 29개국 중 26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성격차지수(2023)의 지표는 보다 총체적인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한국은 '경제 참여와 기회' 부분에서 전체 146개국 중 114개국을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세부항목인 '전문직·기술직' 항목이 완전 평등을 의미하는 1.0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입법자/관리자' 항목에서 0.171점이라는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경력단절, 승진배제 등 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어떠한가. 이어서 김난주 박사의 '지역별 성별임금 격차와 여성 경제활동'을 주제로 지역별 임금격차 현황을 분석해 본다. 

지역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¹⁾

김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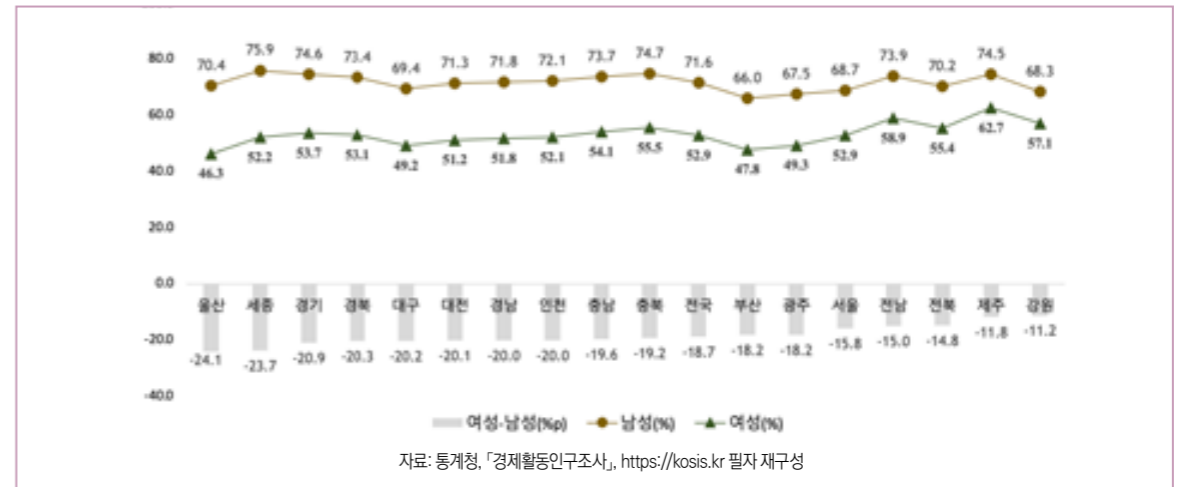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4월²⁾ 기준 전국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은 52.9%이고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62.7%로 가장 높고 울산이 46.3%로 가장 낮다. 울산 외에 2022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이 50%가 안 되는 지역은 부산(47.8%), 대구(49.2%), 광주(49.3%) 3개 지역이다. 2022년 4월 전국 15세 이상 고용률 성 격차는 18.7%p로 여성이 남성보다 18.7%p 낮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4.1%p로 가장 크고 강원이 11.2%p로 가장 적다. 세종시는 울산시 다음으로 고용률 성격차가 23.7%p로 큰 지역이다. 이 외에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경상남도, 인천시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가 20% 이상인 지역이다. 반면, 제주도는 고용률 성격차가 11.2%p로 강원도와 함께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고용률 성격차가 12% 이하로 낮다. 울산시는 15세 여성고

용률이 가장 낮고 고용률 성 격차도 가장 큰 지역이다.[그림1]

2022년 4월 기준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월 중위임금 성 격차는 33.1%이다. 성별 임금 격차 33.1%는 남성 임금근로자가 100만원 벌 때 여성은 33.1만원 적은 66.9만원을 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체 소재지별 월 중위 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울산시가 37.6%로 가장 크다. 울산시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지역은 전라남도(36.2%), 충청남도(33.6%), 인천시(33.2%) 등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역은 성별 임금 격차가 전국 33.1%보다는 낮다. 제주시는 성별 임금 격차가 24.9%로 가장 적은 지역인데 제주시 다음으로 강원도가 25.9%로 적다.

2022년 4월 여성 임금근로자 중위 임금은 200만 4천원이



[그림 1] 15세 이상 지역별 성별 고용률(2022년 4월)

1) 2023년 9월 6일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회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에서 필자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 지역별 임금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서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서가 4월에 조사되는 것을 반영하여 지역별 고용률도 4월로 하였다.

고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90만 8천원으로 가장 적고 세종시는 231만 2천원으로 가장 많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여성 월 중위 임금이 230만원을 상회한다. 반면, 전라남도 다음으로 여성 월 중위 임금이 적은 지역은 강원도(198만 6천원), 부산시(199만원), 경상북도(199만 1천원), 전라북도(199만 2천원), 인천시(199만 4천원), 대구시(199만 6천원), 경상남도(199만 6천원), 광주시(199만 8천원)이다. 이들 9개 지역 여성 임금 근로자 월 중위 임금은 200만원 미만으로 전국 200만 4천원보다 적다. [그림2]

17개 시도별로 고용률 성 격차가 큰 지역과 성별 임금 격차가 일치하지는 않는 편이다. 다만, 울산시의 경우는 예외이다. 울산은 고용률 성 격차가 24.1%p로 가장 큰 지역으로 성별 임금 격차도 37.6%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고용률 성 격차와 성별 임금 격차가 동시에 가장 큰 지역이라면 제주도와 강원도는 그 반대이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고용률 성 격차가 12% 미만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었는데 성별 임금 격차도 제주시 24.9%, 강원도 25.9%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17개 시도 지방공사 및 공단 기관의

근로자 연간 평균 임금을 성별로 공개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성별 평균 임금이 공개된 지방공사 및 공단은 150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연간 평균 임금 기준 성별 격차는 19.2%이다.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시로 13.6%이고 가장 큰 지역은 광주시로 26.8%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인 제주도(23.8%)는 지방공사 및 공단 기준으로는 17개 지역 중 6번째로 성별 임금 격차가 컸다. 전체 임금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인 울산시(24.4%)는 지방공사 및 공단 성별 임금 격차도 전국에서 5번째로 컸다. [그림3]

17개 시도별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를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³⁾와 강원도는 성별 임금 격차도 작고 고용률 성격차도 적다. 울산시는 고용률 성 격차, 전체 임금근로자 성별 임금 격차, 공공부문 일자리 성별 임금 격차도 나머지 지역에 비해 컸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가 여성경제활동에 중요한 이유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 과 직접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정책 추진으로 가능하다. 지역 기반 성평등한 일자리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2023년 1월 기준 101개가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의 확대가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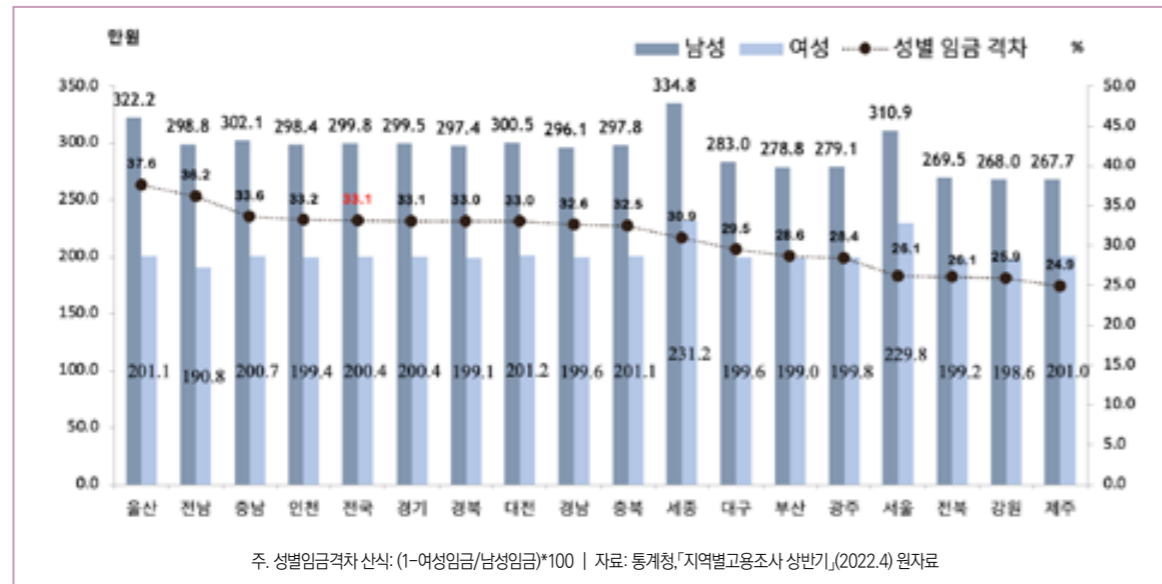
요하다.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횡성군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한 '동일노동 동일 임금' 사업⁴⁾처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연계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여성경제활동법」을 근거로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주축으로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19개 고용평등상담실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2018년 처음 시작되어 피해 근로자들의 일상 및 직장 복귀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의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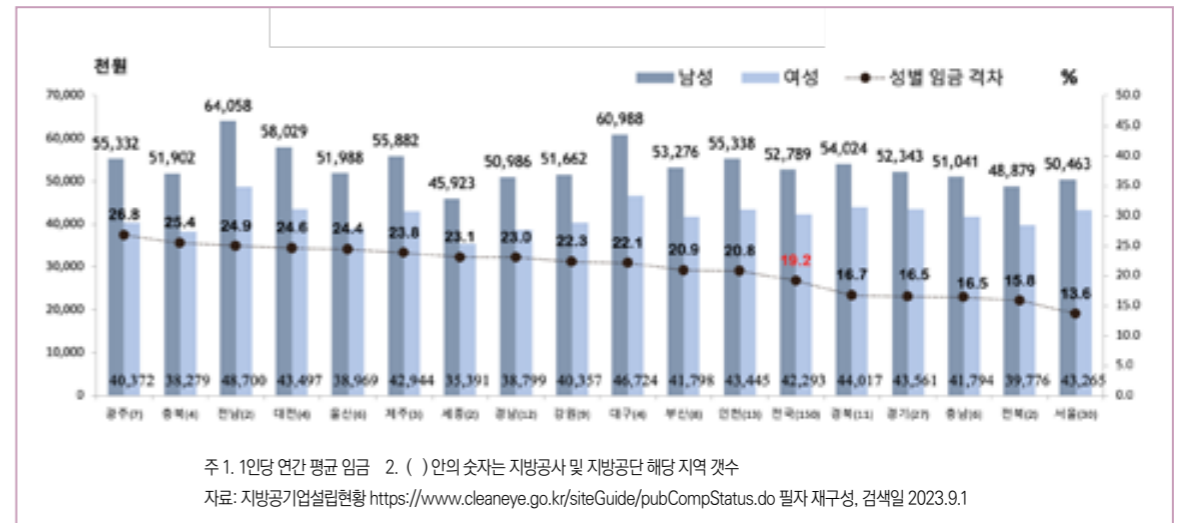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2019년 서울시가 선두로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 49조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성

별임금 격차 개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이후 후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⁵⁾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임금투명화법' 제정이 필요하다. 2023년 4월 EU는 임금차별을 방지하고 EU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을 2023년 4월 2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다. EU는 2020년 기준 13%에 머물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결실물로 임금투명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은 100인 이상 기업 대상으로 임금 정보 공개 및 성별 임금 격차 5% 초과시 고용주에 대한 조치, 임금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 13% 해소를 위해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을 시행하는 EU를 본보기로 성별 임금 격차 최대 국가로서 한국형 '임금투명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그림 2] 사업체 소재지별 성별 월 중위임금(2022년 4월)



[그림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2022년 12월)

3) 다만 제주도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전국에서 높다.
 4) 여성신문(2022.9.1) 여성이라 덜 받은 돈, 지자체가 준다...횡성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업
 경향신문(2023.09.13) [성별임금격차와 싸우다] 발일은 여자들이 잘 하는데...단군 이래 처음 외치는 '농촌 동일임금'
 5) '성별임금격차개선 조례' 제정 지자체(2023.8월말 기준) : 고양시(2020.5.29), 창원시(2020.12.31), 충청남도(2021.8.17), 광주시(2023.7.1), 경기도(2023.7.18.)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 유에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한국 반핵활동가들의 제안으로 1993년 시작된 반핵아시아포럼(NNAF, No Nukes Asia Forum)이 지난 9월 19일(화)부터 23일(토)까지 한국에서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열린 이번 반핵아시아포럼은 스무 번째 포럼이자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대만, 태국, 호주, 필리핀, 튀르키예 등 8개국에서 참가했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국내 43개 단체가 한국준비위원회로 함께 했고, 포럼이 진행되는 지역인 부산과 울산의 YWCA는 각 지역준비위원회로 참석하여 아시아 활동가들을 환대했다.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를 주제 문구로 한 이번 포럼은 서울 개최식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주, 삼척을 지나며 한국 핵발전소 현장을 방문하고 아시아 각국의 반핵활동가들과 연대를 쌓는 일정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하며 마무리되었다.

19일, 개최식이 진행된 서울 포럼에서는 각 참가국 핵발전 현황이 공유되었다. 호주에서는 우라늄 채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핵발전 도입을 위한 정부의 끈질긴 시도가 있었다. 태국은 최근 미국과 손잡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올해 전력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각국의 상황 공유 이후 주제별 세미나에서는 방사성 오염수 문제와 그 대응,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기후위기와 핵매캐팅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20일, 첫 방문 지역인 부산에서 참가자들은 일본 영사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부산 시민단체들과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들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부산YWCA로 이동하여 포럼을 시작했다. 부산의 포럼에서는 ‘핵발전과 국가폭력, 주민투쟁’을 주제로 밀양 송

전담 투쟁기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대마도 핵폐기장 유치에 관한 상황 공유가 있었다.

21일, 울산에서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울산 시청에서 열렸고, 이어 고준위핵폐기물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포화되어가는 핵폐기장을 둘러싼 아시아 각국의 상황들은 비슷했다. 지역에 핵폐기물을 떠넘기고, 문제적 사실들을 은폐했던 것들이 포럼에서 공유되었다.

22일, 경주 나아리에서는 저선량피폭과 주민 건강을 주제로 월성 핵발전 단지 현황과 갑상선암공동소송 발표 세미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후 한수원 홍보관 옆에 자리한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의 투쟁전막에 방문하여 갑상선암과 싸우며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만났다. 이어 방문한 울진에서는 “단일 부지 세계 최대 핵단지화가 되고 있는 울진의 위험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울 핵발전소 3, 4호기 건설만은 꼭 막고 싶다”는 활동가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핵발전소가 보이는 해변을 함께 걸었다.

이후 마지막 행선지인 삼척의 원전백지화기념탑으로 이동하였고, 2019년 총궐기대회와 수요 촛불집회, 찬반 주민투표, 도보 순례 등으로 원전 백지화와 예정구역 지정을 막아낸 삼척 활동가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다. 기념탑 앞에서는 전 일정을 함께한 성미산학교 학생들과 함께 엘름댄스를 추며 핵발전으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탑 옆에는 ‘후쿠시마 아이들의 기념비’와 후쿠시마 청소년들이 심은 나무가 있다.

반핵아시아포럼의 마지막 일정인 23일, 참가자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했다. 본 집회 발언으로 나선 사토 다이ске 반핵아시아포럼 사무국장은 “일본인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일본은 아시아 나라들을 침




① 19일 개최식 및 서울포럼 ② 20일 부산포럼
③ 22일 경주 월성이주대책위원회 방문
④⑤ 22일 울진핵발전소 방문
⑥ 원전백지화기념탑 앞에서 엘름댄스를 ⑦ 23일 청년집담회

략하고 식민 지배했지만, 이번에는 방사능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이 맞서 계속 싸울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필연입니다.”라고 밝히며 아시아의 탈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반핵아시아포럼 참가자들은 탈핵대오의 선두에서 ‘No Nukes Asia’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저녁 반핵아시아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탈핵 청년활동가 집담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밀양에서 송전탑투쟁을 이어가는 남겨진, 탈탈세미나의 허바라, 공혜원, 녹색연합의 변인희, 한국YWCA연합회의 유에스더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했고 대만, 일본 등의 청년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청

년 탈핵활동가들은 각자 어떤 이유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했고, 앞으로 청년이 만들어 나갈 탈핵운동에 대한 고민과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를 나누었다.

다음 21차 반핵아시아포럼은 2025년 5월 대만에서 열린다. 2023년 반핵아시아포럼을 통해 각 운동과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아시아 각국의 활동가들이 향후 펼쳐나갈 탈핵운동을 기대하며, 한국 역시 핵발전소 수명연장 막아내고 더 힘차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길 기대 본다. 

인근지역보다 암발생 44% 높아 경주 월성원전 주민투쟁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아시아지역 탈핵 활동가들은 9월 22일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을 방문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 활동 현황과 환경부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 필자가 발제했고, 갑상선암 공동소송 결과에 대해 서은경 변호사가 발제했다. 세미나를 마친 참석자들은 이주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해 야외 간담회를 짧게 하고, 농성자 옆에 위치한 월성핵발전소 홍보관을 둘러본 후 나아리 해변에서 핵발전소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것으로 ‘2023 반핵아시아포럼’ 경주지역 공식일정을 마쳤다.

환경부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조사했다. 2021년 하반기 조사 설계에 착수해서 2023년 6월 8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필자는 이번 조사의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을 받아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임상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몸속에 삼중수소가 많을수록 임상 수치가 나빠지는 것을 확인했다.

체내 삼중수소 농도에 따라 1그룹(2~14.9Bq/L) 646명, 2그룹(15~99.9Bq/L) 73명, 3그룹(≥100Bq/L) 20명으로 분류하여 임상 수치를 비교했다. ①적혈구, ②백혈구, ③립프구, ④소변 크레아티닌, ⑤활성 비타민D, ⑥갑상선 자극 호르몬, ⑦소변 요오드 등 모든 임상 수치가 체내 삼중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나빠져 나왔다.

특히, 3그룹은 모든 임상 수치가 가장 높거나 가장 낮거나 와서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3그룹 주민의 소변 요오드 함량은 기준치인 100~300μg/l 3배를 초과한다. 요오드가 기준치 3배 이상 검출되면 갑상선

질환의 발생률이 7배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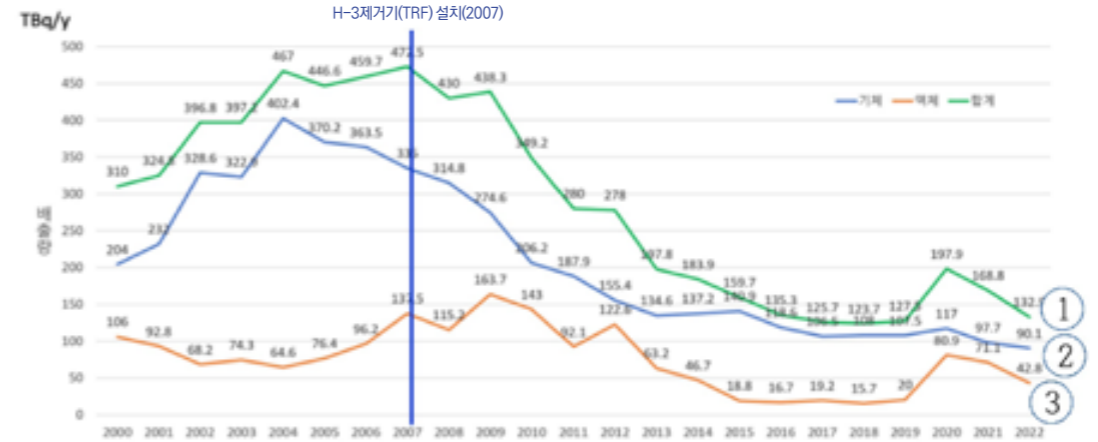
삼중수소 농도가 100베크렐 이상인 주민 20명의 평균 피폭량은 0.0033mSv로 추정 평가된다(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ICRP 평가방식).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 1mSv의 303분의 1에 해당하는 극미량 피폭이다. 그러나 극미량 피폭에도 모든 임상 수치가 가장 나빠져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핵산업계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방사선의 인체 영향을 근본부터 재고해야 한다. 월성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반경 5km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체 조사는 세포 1,000개를 조사하여 염색체가 변형(전좌)된 세포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염색체가 변형된 세포가 6개 이상이면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이번 조사에서 16명이 평생 250mGy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민 47.1%의 염색체 이상을 핵발전소 방사선과 무관하다고 결론냈다. 주민 34명 중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6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6명 중 3명도 염색체 변형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림1]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월성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2022년은 월성핵발전소의 대기 중 삼중수소 배출량(②)이 가장 적은 시기다. 2007년도 대기 중 삼중수소 배출량의 26.9%에 불과하다.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은 6명의 주민도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만큼 방사선에 노출되어 왔



[그림1]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배출량 추이(H-3 핵종 제거기 설치 이후 전체적인 H-3 배출량 추이)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번의 소변 검사를 근거로 6명을 비피폭자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염색체 변형은 전 생애 걸친 누적 방사선 피폭을 나타내는 지표기 때문이다.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암 발생도 눈여겨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치 암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핵발전소 주민의 암 발생률이 인근 지역보다 무려 44% 높게 나타났다. [표] 월성핵발전소 거리별 암 발생률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 암 발생률을 보면, 반경 10km 이내(①) 지역이 31% 높고, 반경 10~20km(②) 지역이 13% 낮다. ①지역과 ②지역을 비교하면, ①지역이 무려 44% 높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 주민의 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현상은 대부분의 암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갑상선암의 경우도 ①지역이 ②지역보다 73% 높게 나타났다.

앞서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주민 960명의 소변과 혈액

	① 반경 10km	② 반경 10~20km	반경①-반경②
모든 암	31%	-13%	44%
위암	54%	-28%	82%
간암	55%	-17%	72%
폐암	61%	-3%	64%
여성 유방암	14%	0%	14%
갑상선암	42%	-31%	73%

[표] 월성핵발전소 거리별 암 발생률(인근지역 평균 발생률과 비교)
-최종보고서 표158'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을 채취해서 여러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평균 검출량은 10.3베크렐(Bq/L)이고, 월성핵발전소에 인접한 나아리 주민은 평균 15.3베크렐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주대책위는 10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을 처음 시작하던 2014년 8월 25일은 72가구였으나 이제는 10여 가구 안쪽으로 줄었다. 핵발전소를 상대하는 건 그만큼 힘겨운 일이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도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민심의 서은경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대에 의뢰해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핵발전소 주변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반경 5km 이내 2.5배, 반경 10km 이내 1.8배로 나왔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인 1mSv 이하로 평가되기 때문에 암 발병을 일으키지 않다는 다는 핵산업계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

Bq(베크렐) : 방사성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 1Bq은 1초에 방사선이 1번 방출되는 양. 삼중수소 100Bq/L는 리터의 액체에 삼중수소 방사선이 1초에 100개 검출된다는 의미.
Sv(시버트) : 인체의 방사선 피폭을 추정하는 단위. mSv(밀리시버트)는 Sv의 1/1000 크기. 가슴 X레이를 촬영하면 평균 0.2~0.34mSv 피폭으로 평가.
Gy(그레이) : 방사선 에너지가 물질에 흡수된 양을 측정하는 단위. 통상 1Gy는 1Sv 피폭으로 추정함. mGy(밀리그레이)는 Gy의 1/1000 크기.

밀양에서 대만까지, 탈핵은 연대를 타고 흐른다

| 남어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활동가

가을에 물드는 밀양

은 동네가 주황빛으로 물드는 경상남도 밀양의 마을, 이맘 때는 밀양 할매 할배들이 한 해 중에 가장 바쁜 계절이다. 농부들은 새벽부터 산으로 올라가 감을 따고, 해가 지고 나서도 감을 고르고 포장한다. 2013년 10월 1일, 정부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고(13차 공사 재개) 3천 명의 경찰을 몰고 왔던 10년 전 가을에도, 송전탑이 완공되고 전기가 흐르는 2023년의 가을에도 주민들은 변함없이 감을 수확한다. 밀양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에서는 매년 가을 농활을 모집해 감 수확 일손을 돕고 있다. 10월 8일, 올해의 첫 농활에 밀양을 찾아 함께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해 만난 할머니는 올해는 비가 너무 자주, 많이 와서 감에 검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감을 매일 만지지 않는 이들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감이 작년보다 훨씬 작고 이미 익어버려 상품화할 수 없게 된 감들이 많았다. 수확량이 작년의 1/5 정도라고 한다. (익어버린 감은 시골에서는 맛있는 과일이지만 상품성이 없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와,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은 밀양 농부들의 숨통을 더욱 막히게 만들고 있다. 한 때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슬로건과 함께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은 송전탑이 완공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다. 밀양의 투쟁은 그렇게 끝난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래도 밀양 사람들은 변함없이 땅에 붙어 살아가고, 폭력으로 얼룩진 국책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며 살아가는 중이다.

아시아 반핵 활동가들에게 밀양 투쟁을 알리다

일본, 대만,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활동가들이 제 30회 반핵아시아포럼에서 서울, 부산, 울산, 경주, 울진, 삼척 등 한국의 탈핵 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하게도 부산에서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졌고, 송전탑 경과지인 부북면 위양마을에 사는 80대 할아버지인 윤여림 반장님과 함께 부산행 무궁화 기차에 올랐다. 나는 밀양송전탑투쟁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게 되어 많이 긴장한 상태였다. 18년 째 이어지고 있는 투쟁을 어떻게 소개해야 송전탑이 다 완공되고 전기가 흐르고 있음에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게다가 송전탑 반대 투쟁이 왜 탈핵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도 잘 설명해내야 했다. 한전이 돈으로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산산조각이 냈는지, 주민들을 짓밟은 밀양 출신 경찰이 경찰 서열 2위까지 승승장구 하며 승진하고 있다는 말도 해야 한다.

2021년 밀양 투쟁에 함께 했던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투쟁 온라인 기록관>에서 사진과 투쟁 일지를 찾고 정리해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30분의 발표 시간 동안 18년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이야기 하나만 잘 전달하고자 마음먹었다. 결국 과적으로는 멧쩍은 웃음이 가득한 부끄러운 발제가 되었다. 말하는 동시에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 통역되는 시스템은 나를 얼얼하게 만들긴 했다. 다른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전기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에너지원 자체



밀양 위양마을의 윤여림 반장님(왼쪽). '탈송전탑이 기후정의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오른쪽).

만 바꾸는 것은 진정한 기후정의가 아님을 강조하려 했다. 한 지역에 밀집된 발전소 단지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고, 초고압 송전탑으로 도시와 공장으로 전기를 송전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전의 에너지 시스템과 같이 여전히 다른 생명의 존엄한 권리를 해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님도 밝혔다.

발제가 끝난 후 윤여림 반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나이로 85세입니다. 왜 지금까지 (송전탑 반대 운동)하고 있느냐.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처음 송전탑 반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움막 9개를 지었고, 거기에 자기 위해서 온돌방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극한 투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철탑 철거가 될 겁니다.”

대만에서 밀양까지 타고 흐르는 연대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1년에 한 번 '기후위기를 주제로 열리는 대형 집회에 밀양 주민들, 반핵 아시아포럼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높였다.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탈핵이 기후정의다'라고 쓰여진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신나게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몇 시간 후 반핵아시아포럼에 참여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청년 반핵/탈핵 활동가 집담회>로 다시 마주 앉았다. 1주일 동안 전국 각지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온 몸이 녹는 듯한 피로가 쌓였음에도 꼭 할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집담회에서 한국의 탈핵활동가들과 해외 탈핵 활동가들이 각자 탈핵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했다. (집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탈핵신문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회적 맥락과 운동사를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대만에서 온 활동가가 공정률 98%의 핵발전소 가동을 막아낸 시위의 경험을 나눴다. (대만은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반적으로 확장된 탈핵 운동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 꾸준히 탈핵 운동을 하다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집담회 도중 대만 활동가 린 치옌 옌이 대만에서 상영된 밀양 투쟁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며 핸드폰에 가지고 있던 '밀양전'의 포스터를 보여주었다. 대만에서도 밀양이 유명하다는 그의 말이 립서비스일지라도, 그가 10년 전에 나온 영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유 모를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풍요로운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전기,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고통받고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고,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은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밀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잊지 못할 싸움을 겪었다. 이제는 위험하고, 불평등한 전기선을 끊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내는 방법이다. 

핵발전소에 갇힌 울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막아내자!

|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핵발전소에 갇힌 울산

울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끼고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다. 부산과 경주 사이에 자리한 울산엔 부산 시 기장군의 고리핵발전소 6기와 울주군 서생면의 4기 핵발전소(신고리5,6호기는 건설 중)가 있다. 울산을 지나 경주시 양남면에 월성, 신월성이란 이름으로 6기의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장,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시설 등 핵과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 거주 규모 또한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대도시이고 인구 밀집지역이다. 울산 인구 110만 명 중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났을 시 대피해야 하는 30km(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반경 내 인구가 거의 110만 명 대부분이다. 부산, 경남을 합치면 380만 명으로 사고 시 대피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최근 걱정거리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더 많고 다양한 핵 관련 문제가 더해져 일상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간 갈등의 골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노후핵발전소 고리 2,3,4호기를 10년 더 쓰겠다고 수명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가 있다.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 내용 중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신규핵발전소 2기 울산 유치에 희망하는 서생면 이장단협의회의 행보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까지.

반핵아시아포럼을 울산에 초대하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57개의 시민 사회 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 단체이다.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사는 시민으로서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탈핵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다.

반핵아시아포럼이 울산 탈핵운동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어 연대의 힘을 높일 수 있고 해외참가자도 있는 만큼 관심을 높여 반핵, 탈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울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일을 맡아 행사를 추진하고 기자회견-포럼-저녁식사와 교류의 시간으로 내용을 꾸렸다. 비용 마련을 위해 참가 단체 분담금 납부와 개인, 단체 후원을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가 인원이 많아 시청 앞 야외 기자회견을 집회식으로 준비했다. 당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시청 프레스센터도 예약 했다. 하지만 참가국 중 관공서 내에서 반핵 관련 행사나 발언을 한번도 해 보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는 연락에 실내 기자회견을 결정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막아내고 탈핵을 앞당기자'는 플래카드를 아래 위로 걸었다. 일본 참가자의 모두 발언은 반핵아시아포럼 울산 행사에 진한 감동과 힘을 줬다. 첫 번째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행사에 참석했다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고 일본이 저지른 죄를 알고 두 번째 개최 때는 용기가 없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살던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사람



들이 보낸 구호물품을 보며 한국사람 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참가하게 되었다며 그 당시 받았던 초콜릿 포장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이며 몇 번이고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사죄합니다,' 라고 말하며 몸을 떨 때 함께 울었다.

일본어 통역사와 오가는 발언 과정은 한편의 극을 보듯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기억될 듯 하다. 감동도 잠시였다. 울산시와 경찰은 우리가 시청광장에서 기념 사진 찍는 것을 집회로 해석해 대처와 고성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짧은 시간 풀기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포럼은 1부 한국과 일본의 고준위 핵폐기물 현황과 2부 각국의 탈핵운동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고준위 핵폐기물 현황 발표가 관심을 끈 것은 우리나라와 너무나 가까운 대마도가 고준위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철차에 들어간 까닭이다. 나는 포럼 2부 진행을 맡았는데 공부를 위해 서울 행사에 참여했다. 8개국 활동 내용을 듣고 자료도 읽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 '2025년 최종 폐쇄' 결정을 내린 대만, 반핵아시아포럼의 영향을 받아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태국, 핵발전소는 없지만 전 세계 우리나라 공급의 35%를 차지하는 호주 등 평소 관심이 컸던 나라들의 이야기는 쉽게 전해졌다.

인도 여성들의 반핵운동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소개한 인도 참가자는 큰 감동을 전했다. 새롭게 알게 된 튀르키예, 필리핀 그리고 가장 관심이 컸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의 탈핵운동에 대해 들었다. 우리나라 대

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원전 수출 협의 사진을 보며 한숨과 놀라움 그리고 미안함 등 여러 감정이 올라왔다.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는 짧은 발표를 할 수 있었지만 호주, 태국, 튀르키예는 인사말만 하게 되어 해외참가자도 듣는 울산 참가자도 서로 안타까움이 컸다. 핵산업계가 핵을 확대하는 과정은 국경을 넘어 똑같이 진행되고 이에 맞서는 시민운동도 다른 듯 보여도 핵을 반대하고 탈핵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래서 거대한 핵발전 세력에 맞서고 탈핵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로지 '연대'하고 '연대'하자고 외치던 호주 참가자의 모습은 오래 기억될 것 같다.

아쉬움을 남기고 마무리한 울산 행사

전체 포럼 일정 중간에 치르지는 울산 행사라 해외참가자들의 건강과 피로도를 고려해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동선과 장소를 선택했다. 숙소 내 운영하지 않는 식당을 이용해 저녁밥을 먹으며 짧은 인사 시간을 가졌다. 8시간 남짓 울산에서 만나 말 한마디 서로 나누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자산과 숙제를 남겼다. 3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와 조직위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며 밝은 에너지를 뽐냈고 서로 배우며 나누고 소중함을 흠뻑 느끼는 장이었다.

당일 자원봉사하느라, 다른 일정으로 부분 참여만 가능했던 타지역 대표님은 평가회를 갖고 각국의 탈핵운동 현황과 사례 발표를 통해 울산지역 현안인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탈핵을 앞당기자고 다짐했다.

청소년들이 말한다, “지구는 한 개, 기후는 한계!”

글·편집실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를 외치기 위해 청소년들이 모였다. 한국YWCA 청소년 회원 Y틴은 9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916 기후정의 페스티벌: 기후위기, 우리의 위기'를 개최했다. 기후위기를 '우리 청소년의 위기'라고 정의하고 이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Y틴 전국협의회 회장 김민선과 대구 Y틴 홍혜진은 “우리 청소년이 생각하고 느낀 기후위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겠다”며 기후정의라는 다소 무거운 수 있는 주제를 “이번 축제에서 재미있게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후정의 페스티벌에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었다. ▲기후위기 OX 퀴즈 ▲발언 ▲공연 ▲넙기 대회 ▲피켓 콘테스트 ▲퍼포먼스 등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를 놓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에 한 시간이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됐다.

‘내 점수는요~’ 학교, 기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첫 번째 본행사인 ‘기후위기 OX퀴즈’는 정부와 기업, 학교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사회자들은 우리나라 학교의 기후교육 부재와 학교 급식 잔반처리, 국내 기업의 그린워싱 실태(기업들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 국제적 신뢰도가 낮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해 꼬집었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정부와 기업, 학교의 기후위기 점수를 ‘0점’ ‘미이너스’라고 외쳤다.

이어진 발언 시간에는 Y틴 중부지역 회장 이은우와 서울 Y틴 신해민이 나섰다. 이은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위기고

육은 너무 뒤통수”며 안타까워했다. 이은우는 “내 생활방식을 바꾸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에게 소리 내며 목소리를 전할 것이다”며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낸다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청소년들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Y틴 신해민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지구를 파괴하며 남에게 그 해결을 떠넘기는 행위, 더 나은 삶이라고 거짓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모두 멈춰야 한다”고 외쳤다. 두 청소년들의 진심어린 발언은 마로니에 공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경청하게 했다. 뒤이어 청계자유 발도르프 학교 풍물패의 공연이 계속되자 멀리서 행사를 지켜보기만 하던 시민들까지 박수를 치며 흥겹게 페스티벌에 함께했다.

“지구도, 청소년도 경쟁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풍물패 공연 이후 넙기대회가 이어졌다. 홀라후프를 기후위기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를 힘껏 넘어보는 프로그램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여러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기후위기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냈다. 모두 11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74개의 기후위기를 넘겼다.

넙기대회로 땀을 뻘 뼉은 참가자들은 이어진 ‘피켓 콘테스트’에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뽐냈다. 한 참가자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한 2050년 한반도를 상상하며, 본인의 거주지인 안산 또한 물에 잠겼다는 기사를 담은 가상 기사를 작성해 선보였다. 이외 많은 참가자들이 인상 깊은 문구와 일러스트로 시




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구는 한 개, 기후는 한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환경을 늘 생각하자!’ 처럼 운율을 살린 피켓부터 ‘경쟁 철폐가 기후위기 타개책! 지금 당장 기후정의! ‘지구도 청소년도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같은 목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날리는 피켓, 지구가 열화 해결방법을 담은 피켓, 물에 잠긴 한반도에서 대중교통이 된 보트의 모습 등등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에 대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가 넘는다, 우리의 위기!”

“우리는 ‘발잔’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짓밟는 부정의와, 기후위기라고 말하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무책임에 분노한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떨치고 나와, 모두의 거리로 나설 것을 선언한다. 마주한 서로의 얼굴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맞잡은 두 손에서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퍼포먼스였다. Y틴들이 오는 9월 23일에 진행될 923기후정의행진 참가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 결의를 선언하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 기후위기를 넘는 퍼포먼스와 행진을 하였다. 선언문 낭독은 Y틴 북부지역 회장 전하늘, 대구Y틴 강경화, 안산Y틴 홍수빈, 수원Y틴 신유빈이 맡았다. 선언문을 낭독한 Y틴들이 ‘기후위기’가 씌여진 줄을 넘자, 풍물패를 선두로 한 참가자들이 행렬을 만들어 행사장 주변을 걷기 시작했고, 행사장에 세워진 ‘기후위기’ 줄을 넘으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렬에는 Y틴을 비롯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도 변화를 위한 발걸음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함께했다. 행진을 마친 이후에도 주변 쓰레기를 줍는 ‘줍깅’과 923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포스터 액션에도 동참했다. 

함께하는 우리, YWCA 중견실무활동가

이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23년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이 9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2023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교육으로, 회원YWCA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전국의 중견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총 18개 회원YWCA의 중견실무활동가 26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2023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의 전체 주제는 '쉽'으로, 자연에 둘러싸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교육은 날짜별로 각각 '성찰의 날', '쉽과 재충전의 날', '비전의 날'로 구성되었다.

1일차인 '성찰의 날'에는 YWCA 중견실무활동가들이 서클대화 워크숍을 통해 '자기'와 '우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의 활동가로서 느꼈던 개인의 고민을 나누고, YWCA 중견실무활동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던 우리의 활동 가치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중견실무활동가들은 각자의 활동지역은 다르지만, 결국 YWCA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일차인 '쉽과 재충전의 날'에는 푸르른 자연에서 휴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되었다. 마음의 피로를 녹이는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으로 둘째 날을 시작하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이효석문화예술촌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주문진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YWCA 사진찍기> 조별미션을 진행하였고, 저녁시간에는 활동가 네트워크를 위한 <사람책방>을 진행하였다. <사람책방>은 사람이 책이 되어 이야기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총 5명의 중견실무활동가가 사람책이 되었다. 각각 '활동가의 시간(순천YWCA 이귀선국장)', '활동가의 일(충주Y 표효순



국장)', '중간관리자의 역할(대구Y 정은영국장)', '활동가의 사람들(고양Y 남궁혜경 국장)', '활동가의 시련과 희망(광주Y 오희경국장)'을 주제로 YWCA 중견활동가로서의 경험을 나누었고, 사람책을 읽는 독자들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일차에는 '비전의 날'에 맞추어 임팩트 특강이 진

행되었다. 유성희원장(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원장)이 <AI 시대, 인간과 시민사회 이해>를 제목으로, 현재로 다가온 AI시대에 맞추어 시민단체인 YWCA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유성희원장은 "생산형 AI 분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만, 아직 생산형 AI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많지 않다"며 "YWCA가 먼저 생산형 AI와 앞으로의 AI 시대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YWCA가 AI시대의 시민사회에 대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이다"라고 말하며 YWCA의 미래를 응원했다.

교육을 마치며 중견실무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추후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중견실무활동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싶다"며 2박 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지역에서 따로 또 함께 활동하던 중견실무활동가들이 치열한 활동 현장이 아닌 보다 쉽이 있는 공간에서 서로를 만나 네트워크를 다진 만큼, 중견실무활동가들이 서로에게 앞으로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YWCA

YWCA 중견실무활동가 연수 후기

더불어 함께 멋지게 성장하자!

구금순 (사)광주YWCA 부장

어느덧 나도 중견실무활동가 연수에 참가하기 위하여 광주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오랜 시간이 걸려 연수 장소인 평창청소년수련원에 도착했다. 신입 실무자 연수 때 기대와 설렘으로 반짝였던 눈빛은 여러 업무로 지친 모습이었다.

첫날 '자기이해'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잊고 살았던 지나 온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린시절의 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나의 주변 사람들, 아 나의 삶에 이렇게 많은 행복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새삼 느끼며 물어두었던 추억들을 하나씩 끄집어 내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었다.

'우리이해'란 시간을 통해 YWCA에서 걸어 온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었다. Y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과 보람, 분노와 갈등, 상처와 인내를 겪어오면서 어느새 큰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분노와 갈등과 상처, 인내가 새겨진 흔적들을 품을 수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과 폭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튼실한 중견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사람책방'을 보고 들으면서 몰랐던 그들의 노고와 헌신을 알게 되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루어 온 값진 열매에 박수를 보내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위로자, 동역자가 되었고 다시 힘을 얻었다. 우리는 어느새 선배와 후배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밝게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YWCA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좋아하는 활동가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함께 더욱 강해지고 멋지게 성장해 가는 당신을 응원한다!

8년차 새내기입니다

권한별 (사)울산YWCA 팀장

YWCA와 함께한 지 7년 6개월, 아직은 중견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연차지만, 수많은 고민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확신에 설레는 마음으로 평창으로 향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스스로 마주하는 시간들을 통해 '나'를 다시 재조명할 수 있었다.

팀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을 때의 중압감을 잊지 못한다. 간사와 팀장의 그 차이가 단 하루밖에 아닌데 좋은 팀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조직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는 자기 탐구로 발목이 칭칭 묶여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연수를 보내고 숨통이 트였다. 우리 Y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하는 동역자이니 다른 어느 이들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여러 중견활동가들의 소중한 체험을 들으며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고민과 경험이 있었고, 그 담금질 과정을 지나 현재가 있음을 알게 됐다. 2박 3일이 길다 생각했는데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나의 민낯을 보여며 피드백을 받고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잠시나마의 단비를 잊지 못할 것 같다. 푸르른 평창의 숲과 드넓은 강원도의 바다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간다. 이 모임이 2차, 3차에 거쳐 더 끈끈한 결속력을 가진 관계가 되길 원한다. 우리는 고요하지만 든든한 힘으로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존재 그 자체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나아가는 발걸음에 동력이 될 것이다.

청(소)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로 외치는 기후정의 기후정의는 곧 탈핵이다

이유스더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2019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지구에 불이 났다”고 외치던 외침이 코로나를 지나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되어 2023년 924기후정의행진에 참석한 3만 명의 얼굴로 거리에 등장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화하는 기후가 ‘전 지구적 위기’임을 모르는 이가 없게 되었다. 해마다 폭염과 폭우 등 더 강력한 기후재난이 우리와 이웃의 일상과 삶의 터전으로 밀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무책임했다. 실효성있는 기후재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기후참사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또한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폭주하는 핵발전 정책을 현실화 시키고, 화석연료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는 감소시켰다. 그런가하면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 복지에산 감소 등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했고 시민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연대의 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의 이름으로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서울 시청대로에서 열렸다. 전국 600여 개의 단체와 2600여 명의 추진위원, 당일

3만 5천명의 시민이 외친 대정부 요구는 다음의 5대 요구안과 14개 세부 요구안이였다.

5대 요구안

- ❶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 ❷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 ❸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❹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 ❺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작년 ‘청(소)년, 여성, 지역의 자리에서’ 기후정의를 외칠 것을 선언했던 YWCA는 조금 더 깊어진 고민으로 올해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Y-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위

기를 중점운동으로 결정한 만큼 올해 전국대회에서 923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할 것을 확정하고,

‘청(소)년, 여성, 지역의 자리에서’ ‘청(소)년, 여성, 지역의 목소리’로 배움과 행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기후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인식하고 분노, 슬픔, 우울, 희망, 연대의 마음을 담은 한 마디들은 성명서로 발표되어 916기후정의페스티벌에서 발표되었다. 청소년들은 923에서 직접 부스를 꾸리고, ‘어떤 기후활동가로 활동하면 좋을지’ MBTI별로 검사해 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ECO FEMINIST’, ‘탈핵이 기후정의’, ‘YOUTH WANTS CLIMATE JUSTICE’ 등의 문구를 담은 굿즈도 제작해 시민들을 만났다.

YWCA는 또한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성평등한 기후정의를 외쳤다. 5월부터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연합, 동물해방물결, 장애여성공감 등과 함께 작업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을 발표하며, 가부장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탈성장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선언문에는 총 11개의 세부 요구안을 담았다. YWCA는 특별히 국제사회의 책임이행을 위해서라도 성평등 관점에서 기후정책을 꾸릴 수 있는 ‘젠더액션플랜’을 도입할 것과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할 것, 그리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탈핵과 탈석탄 정책을 요청했다. 923행진 동안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에 함께한 단체들은 보라색 상징물을 함께 준비했고, YWCA는 보라색 ‘성평등 기후정의’ 일곱 글자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성평등 기후정의” 일곱 글자 피켓의 뒷면은 “탈핵이 기후정의”였다. 고리2호기를 필두로 전국 18기의 핵발전소를

10년씩 수명연장하고, 백지화되었던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검증되지도 않은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들여오고, 저장할 곳 없는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또다시 저장시설을 지역에 짓고 있는 한국 정부의 핵폭주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핵발전 부흥을 꿈꾸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기어코 전 세계를 향해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3년, ‘기후정의는 곧 탈핵’이다.

YWCA와 함께하는 탈핵시민행동과 반핵아시아포럼은 탈핵부스를 운영하며 핵발전의 위험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굿즈를 판매하며 부스 운영 시간동안 탈핵발언대를 진행했다. 경주, 밀양, 부산, 영광, 울산부터 반핵아시아포럼에 참여한 아시아 활동가들까지 각 지역의 현황을 알리고 탈핵을 위한 뜨거운 외침이 이어졌다. 탈핵대오는 핵폭주를 이어가는 현 정부에게 지금의 기후정의를 외치기 위해 용산방면으로 행진하였으며, YWCA 역시 노란색 탈핵 손수건을 두르고, 탈핵피켓을 들고 이 길에 함께 했다. YWCA활동가로써 집회 사회를 맡으며, “에코페미니스트이자 아시아와 연대하는 탈핵활동가”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탈핵 손수건을 두른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였다.

늘어가는 핵발전소, 핵폐기물 저장시설, 방류되는 핵오염수, 멈추지 않는 석탄발전소, 줄어드는 재생에너지, 기후재난 앞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 생명들.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정의를 외치는 우리의 힘이 절실한 2023년, 923행진에서 다함께 모은 발걸음은 YWCA 51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YWCA 재구조화 2.0 체제 전환에서 체질 전환으로

| 조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알 수 없던 길에서 함께한 우리

2020년 한국YWCA는 53개 회원YWCA의 법인화를 위한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작할 당시 기도하고 논의하며 애졌지만 계획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이었다. 3년이 지난 2023년 10월, 53개 회원YWCA 중 49개 회원YWCA(92%)가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 이외 4개 회원YWCA는 자체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을 완료하였거나 해산 의결을 준비중이며, 또는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하였다.

법인화 과정을 위해 연합회는 기존의 회원YWCA 경영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YWCA 조직 구조와 운영 상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

였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10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주소를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왔다.

새로운 100년의 비전인 '지역성'과 '청년성'을 강화하고 회원YWCA의 재구조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연합회도 선제적으로 체제의 전환을 실행하였다. 보다 효과적이며 강한 책무성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이원화된 법인이사회와 실행위원회를 법인이사회로 일원화하고 회원YWCA를 대표하는 이사, 청년이사, 연합회 이사 각 1/3로 균형감 있는 대표성과 실행 중심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로 혁신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회원YWCA 재구조

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협력, 지원, 교육을 강화하는 구조로 변화하여 적극 지원해왔다.

재구조화 과정 1차년도에는 비교적 규모도 크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는 회원YWCA들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2차, 3차년도로 나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으로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는 회원YWCA들이 법인 전환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인 전환을 위한 내부 기준이 보다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회원YWCA들의 제안이 있었다. 연합회는 이 제안에 귀기울이고 보다 적합한 틀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그 준비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마침내 한국YWCA 재구조화 과정 1.0인 법인 전환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변화의 길, 우리의 도전

돌아보면 모두 감사이고 은혜이다. 믿음으로 변화의 길을 나섰고 그 길에 접어들어 더 나아갈 길을 향해 선 우리는 이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와 성령의 지혜와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였음을 고백한다. 회원YWCA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의 밤낮 없는 헌신과 눈물의 기도, 그 회원YWCA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24시간 대기하면서 회원YWCA의 필요에 대응한 연합회 실무활동가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준 자원활동가들의 땀과 눈물이 함께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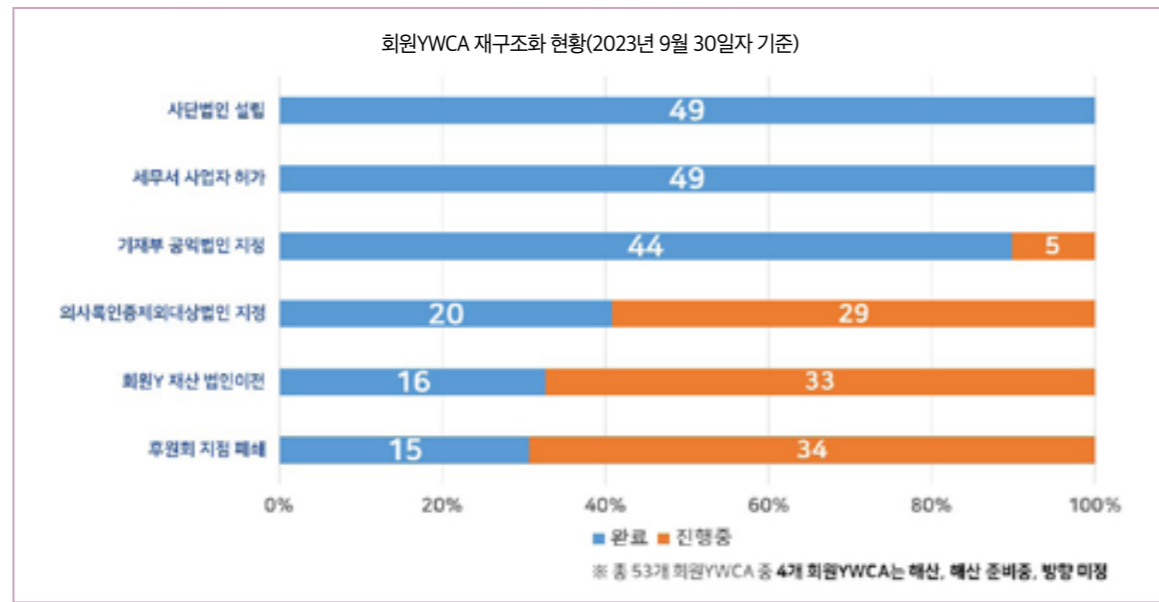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항해를 나선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되새기며 이제 법인 재구조화 2.0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법인격으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법인체제로 전환하기까지도 어려웠지만 새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체질의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재구조화의 여정은 체제의 전환이었다면 앞으로의 2-3년은 체질의 전환이어야 할 것이다. 법인으로 전환한 회원YWCA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독립된 회원YWCA들이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갖추고 지역사회

에서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살아내야 하는 과정에 진입한 것이다.

회원YWCA의 규모와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알게 된 한국YWCA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은 1) 회원 수의 감소 및 젊은 회원 부족, 2) 불건전한 재정구조 즉, 보조금이나 지원사업 중심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와 운영, 3) 지역사회의 필요를 해결하거나 권익을 옹호하는 우리만의 목적사업이나 운동의 결여, 4) 회원YWCA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실무활동가 확보와 자원활동가 영입의 어려움, 5) 활동가들의 리더십 약화로 인한 책무성 결여이다.

사실 이 5가지의 도전은 상호 간에 인과로 얽혀 있다. 즉, 그간 지역사회에서 얻은 공신력을 기반으로 외부 사업 중심의 운영에 집중해 온 결과 YWCA만의 목적사업이나 운동이 결여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뚜렷한 목적사업과 운동이 부족한 결과 기존 회원이 아닌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회원들 개인이나 일부 교회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회원을 증모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 또한 지자체 위탁 사업들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고,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발맞추는 우리만의 일을 발굴하고 나아가는데 둔감해졌다. 회원의 감소는 활동가들에게 역량면에서나 재정면에서 부담을 주게 되어 활동성을 위축하게 하고 리더십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나 어느새 우리의 조직은 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출렁이고 있다.

우리의 5가지 도전은 하나의 도전을 해결하면 다른 도전들이 연달아 해결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도전을 해결하려는 접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잘해온 일들을 살펴보고 새 길을 나서기 전 필요한 것들로 짐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 몇몇 회원YWCA의 사례에서 위기 속에서 기회가 피어나고 있다. 기



방 안의 코끼리를 꺼낼 준비가 되었나요?

「아무나 쓰고 아무도 모르는 거버넌스」

| 김유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



회원YWCA 법인승인 온라인간담회 사진


존에 우리가 해보던 것들의 새로운 조합 즉, 후원이나 회원으로 느슨한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지역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불편과 생활상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나아가려는 실험적인 시도와 연대가 시작되고 있다.

체질 전환의 준비

이런 시도와 연대는 우리의 체질 변화의 반가운 신호탄이며 선결과제가 되었다. 체제 전환에서 그랬듯이 체질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연합회와 회원YWCA가 추후 긴밀하게 연대하며 협력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체질 전환의 시작 전 단계로 회원YWCA와 연합회가 준비해야 할 것을 큰 방향성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각 회원YWCA는 다시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YWCA 재구조화 1.0 과정에서 회원YWCA가 공통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5개년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이었다. 회원YWCA는 1년, 3년,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어떤 단체이고 싶은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성취하고,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 활동가들이 모여 기도하고 숙의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그림을 꾸꾸지 않는 한 새롭게 나아가기는 어렵다. 회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비전과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즉 그 사안이 해결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회원YWCA의 중·단기 비전과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이끌고 그 내용을 수렴하여 회원YWCA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다시금 그 기능과 실행을 업그레이드하며 변형을 거듭해야 한다.

이끄심을 구하며 두려움 없이

100년전, 우리 앞에 펼쳐진 도도한 강이 있었다. 익숙한 땅을 떠나 그 강을 건너야 했다. 무력했으나 선하신 이끄심을 믿고 낮 설은 배 속에서 씹 없이 노를 저어 결국 강기슭에 도달했다. 그렇게 강기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아남게 한 배와 한 몸이 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알 수 없는 숲 앞에서 뒤돌아본다. 지금 우리 앞의 강물이 우리가 본 어제의 강물이 아닌듯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이 더욱 명확하다.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끌고 숲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한다. 기존의 구조화되고 절차화된 방식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야 하며, 의례적 행동을 내려놓고 깊이있는 논의와 탐색에 새롭게 몰입하고 몰두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 즉, 우리의 모든 만남, 회의 과정과 결과는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나름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그와 관련된 일 경험을 통해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 책을 보면서 오만이었음을 새삼 느꼈다. 비영리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저자는 그동안 비영리조직에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거나, 말하지 않은’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과감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 이사회를 중심으로 비영리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요소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수반되는 것처럼 저자는 비영리 거버넌스를 설명하면서 시종 일관 책임과 책무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비영리 거버넌스와 책무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몇 년 전 비영리조직 운영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 제법 규모가 큰 어느 단체는 거버넌스 운영 규칙이 별도로 있고, 신입 이사진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여 다른 참여단체들이 놀라웠던 기억이 난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전담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가능하겠거니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조직의 규모 여하와 제반 여건을 떠나서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비영리조직에게도 필수불가결하다. 굿 거버넌스는 조직의 비전을 함께 꾸꾸면서 조직의 전략을 모색하고, 조직의 정책을 수립하며, 이사회와 운영진이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여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문화와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문화는 상호 신뢰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냉정



하게 바라본다면 거버넌스의 역할과 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진에 대한 기대 역할 역시 재정 기여에만 국한 짓는 경우가 많다.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거버넌스 운영이 아닌 조직의 미래상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영리조직은 여전히 관계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정작 조직 내에서 희석되는 경우도 있

다.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조직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가진 이사진을 모시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보니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인맥에 의존한 거버넌스 구조는 때로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사를 우리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무용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그 언젠가를 기대해본다. 아직은 조직 안에서 비영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힘든 여건 속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굳이 ‘불편하고, 어색한’ 주제를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가치지향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비영리 거버넌스를 이야기해야 한다. 굿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곧 조직의 규범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조직의 신뢰와도 결부된다. 많은 조직들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고민한다.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하고, 불안하지만 담대하게 마주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 책이 그 변화의 여정에 작은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복지사업단 설립 22년, 새로운 도약 시작해야 할 때

| 배경미

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국장

‘YWCA 복지사업단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TF(위원장:이종임 복지사업단 이사장) 위원과 은학의집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10여 명의 연수단(이하 ‘YWCA 연수단’)이 지난 9월 26일(화)~29일(금)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어르신중심의 공동체형 주거시설(콜렉티브하우스, 그룹리빙홈)과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인 요코하마의 시노하라 지역케어프라자, 그리고 2023 도쿄 국제 홈 케어 및 재활 박람회 등을 참관했다.

2023년 현재 일본은 성인 3명중 1명(29.1%)이 어르신이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5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채택하여 의료·간호·개호(介護·옆에서 돌봐줌)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첫째 날, NPO법인 하우징사가 운영하는 콜렉티브하우스 스가모플랫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어하우스로 더 잘 알려진 콜렉티브하우스는 서로 독립된 세대들의 생활을 기본으로, 부엌이나 거실 등의 공용공간이 계획된 주택에서 복수 세대가 일상생활의 일부를 공유하는 거주형식이다.

본 연수단이 주목한 것은 콜렉티브하우스 운영을 기획, 건물 임대,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사업자 선정, 입주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는 등 전체 코디네이션을 담당

하는 NPO법인의 역할이었다. NPO법인 하우징사는 도쿄에서만 6개의 콜렉티브하우스를 설립했고, 이 가운데 5개의 콜렉티브하우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건물주, 임대주)와 입주민간의 조정은 물론 입주민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날 찾은 곳은 ‘2023 일본 도쿄 국제 홈 케어 및 재활 박람회’가 열리는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이었다. 전시회는 어르신 개호에 필요한 보장구(생활용품&가구, 건강&스포츠, 의료&제약)가 주를 이뤘다, 우리나라도 초기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구매력을 가진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선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을 둘러볼 수 있었다.

연수 셋째날 오전에는 어르신 그룹리빙홈으로 유명한 COCO쇼난다이를 방문했다. COCO쇼난다이는 NPO법인 COCO쇼난(湘南)이 카나가와현 후지사와시에서 1999년 4월에 건설한 임대주택이고, 고령자 그룹리빙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 ‘그룹리빙’은 공동체(Community)와 지역사회(Community)의 앞글자를 딴 명칭이고, 혈연관계가 없는 65세 이상의 비교적 건강한 어르신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복지로

윤수정 (사)은학의집 관장

YWCA복지사업단과 은학의집 발전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일본연수에서 느낀 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노인복지를 넘어 지역복지로’이다. 지금의 은학의집은 어느 순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YWCA은학의집 노인복지의 대상자이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더 많은 어르신들과의 복지 접점은 없는 조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일본연수를 통해 만나본 콜렉티브 하우스, 코코 쇼난다이, 시노하라 지역 케어 플라자는 노인(건강한 노인, 케어가 필요한 노인 모두)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립적으로 공생하는 곳이었다. 앞으로 변화될 은학의집도 은학의집을 넘어 지역사회를 돌보며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노인 그룹 리빙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 작은 도서관, 실버 카페, 커뮤니티 센터, 독거(재)가노인지

원센터, 커뮤니티 케어 센터 등을 함께 만들어서, 은학의집이 거주 노인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인이 주도적으로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 모색과 실행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학의집은 그 방향에 맞춰 관련된 행정 처리와 내부 정리 등의 역할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콜렉티브 하우스와 코코 쇼난다이에 처음에 각 기관의 가치와 방향성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파트너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기에 연수 이후에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수와 강의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협의하면서 발전방향의 안을 만드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면서 공동 생활한다.

YWCA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도 이사장 오가와 타이코는 물론이고 이토 아키히로(주)MEDIFTRAIN 대표) 이사가 동행하면서 설명해주었는데, COCO쇼난다이의 성공적인 운영은 건축과 복지, 의료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 지원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오후에는 요코하마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탁, 운영하는 ‘시노하라 지역케어프라자’를 방문했다. 시노하라 지역케어프라자는 우리나라의 주간보호센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는 데 특이하게도 주민자치센터의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정부의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준시장 원리를 도입, 이용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공급

자간 경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일본은 지자체별로 적정량의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규제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한 어르신을 모시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YWCA 복지사업단은 한국 노인을 위한 복지모델을 찾는 중이고, 2023년 현재로서는 은학의집을 기반으로 주간보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과 운영체계를 바꿔보는 안으로 논의 중이다. 어르신들이 바라는 노년의 삶과 죽음은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익숙한 내 집에서 잠들듯이’ 하 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은학의 집이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내 집’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어떨까?



평화를 옹호하고, 점령에 맞섭시다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AFP

민간인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폭격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예루살렘 기준)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에서 10일 화요일 18시까지의 공습으로 어린이, 여성, 보건의 종사자, 언론인 등 83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택과 주거용 건물, 재산 및 기반 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약 19만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집을 잃거나, 폭격에 대한 두려움, 안전에 대한 염려 등으로 강제로 실랑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는 현재 식량, 물, 전기, 연료 등의 모든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 포위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기에, 팔레스타인YWCA는 인권과 국제법이 무엇보다 존중되고, 명확히 주장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2호와 결의 338호에 명시된 팔레스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지합니다. 정의와 평화는 이 땅에서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우리 운동의 비전이자 목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

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 끝나지 않는 상황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이스라엘의 점령임을 인정하고, 국제법과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이스라엘이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십시오.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을 멈추게 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 지속적인 공격과 악화되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긴급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십시오.
- UN 결의안에 명시된 팔레스타인의 권리, 특히 자결권, 자유, 독립을 지지하십시오. 그리고 '1967년 국경선'을 기초로 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지지하십시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권 문제를 확대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의와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며, 자유와 안전의 평등한 기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점령에 맞서지 않고는 평화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1 글-팔레스타인YWCA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

1.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선주민을 쫓아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네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이후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게 됐다.
2.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상대로 한 수많은 소규모 전투와 학살, 이동의 자유 침해, 생필품 보급 중단 등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해왔다.
3. 이번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무장 저항단체인 하마스(HAMAS)는 이러한 배경에서 태동한 단체이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9월 월례아침기도회



9월 월례아침기도회가 9월 1일(금)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여성신학위원회 위원이자 여성영성연구소 「The 품」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경 목사가 마태복음 25장 1-13절 말씀을 바탕으로 '불씨를 품은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월례아침기도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가 기후 재앙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을 위해 기도했다.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0월 4일(수)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이며, 10·29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은정 목사가 맡았다. 손은정 목사는 누가복음 1장 39-45절 말씀으로 '단비 같은 자매애'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참석자들은 10·29 참사로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지원하고 연대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했다. (월례기도회 말씀은 5쪽)

엘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평화촛불

한국YWCA가 함께 하는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8월 14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엘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더불어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산나 국장은 "군사와 무기 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민간항공기의 2배 이상"임



을 지적하며 "미국 핵전략 자산이 투입되는 위험한 전쟁 연습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정부에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8월18일(금) 오후 7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쟁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촛불 행사가 진행됐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월 22일(화) 오후 2시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가 같은 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8월 24일에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투기 하겠다고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행동 연대 단위의 연합회를 비롯해 환경재단, 정의당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23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22일(화)부터 24일(목) 경남 양산 '숲에서'에서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회원YWCA 사무총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YWCA 중점운동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2024-2025 한국YWCA 운동·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주제강연과 탈핵 동화극으로 YWCA 중점운동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 2024-2025년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강연에서는 김혜정(지속가능발전연구소) 공동대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원자력 발전에 대해, 김요한



(지역과 인제) 대표는 ‘한국사회 청년운동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탈핵 동화극 시간에는 새벽극단의 ‘집으로’가 상연됐다. 2024-2025년 한국YWCA 운동·운영정책안을 마련하는 시간에는 사무총장 간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다. 사무회의에서는 2024-2025 연합회 법인이사(사무총장 대표)로 반혜영(창원Y), 이신선(서귀포Y) 사무총장이 추천됐으며, 2024-2025 한국YWCA 운동·운영정책안 협의, 퇴임 사무총장 전별금 기준 등이 협의됐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국민들은 불안하다.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당장 제소하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8월 24일(목)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직무실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하겠다고 밝힌 오후 1시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연합회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핵 테러를 감행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위반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외쳤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최 오염수투기 반대 긴급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월 24일(목)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직



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확정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 일에 맞춰 진행했다. 연합회를 비롯해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각계 시민단체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대응하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을 ‘괴담세력’으로 몰아가고, 보조금 제한으로 업포를 놓는 방침을 택하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유에스더 연합회 활동가는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시민단체를 이권카르텔로 지칭하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일양국정부의 핵발전 카르텔을 먼저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기독교청년 기후정의학교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청년들은 왜 기후정의를 말해야 할까?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연합회, 데나리온 은행,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8월 24일(목)~9월 16일(토) ‘기독교청년 기후정의학교’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기후정의학교에는 기독교청년들이 기후정의를 말해야 하는 이유와 실천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참가자들이 서울 향린교회와 성민교회에서 기후정의 관련 강연을 듣고 기후위기 최전선인 쪽방촌 주민들과 만나는 간담회에 참여토록 했다. 또한 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군산지역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을 둘러보는 현장기행도 진행했다. 한국YWCA 청년운동팀이

현장기행 운영을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11쪽)

핵오염수 공동행동 주최 범국민대회



8월 26일(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1차 범국민대회 이어 9월 2일(토) 오후 4시에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각 범국민대회에는 약 5만 여 명의 시민이 시청역 일대에 모여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과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연합회 유에스더 탈핵활동가가 2차 범국민대회 사회로 참여했다.

연합회 활동가들은 1, 2차 집회에서 모두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참여했고, 집회 발언자들의 강력한 규탄과 간곡한 호소에 호응했다. 집회에 이어진 행진에서는 시청에서 용산까지 4호차 선두로 나섰다. 연합회는 행렬을 이어가며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관한 발언과 구호 제창 등을 하였고, 차량 속 시민들과 거리의 시민들에게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에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8월 29일(화)부터 30일(수)까지 1박 2일간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자운동’을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의 12개 회원단체 전국 활동가 15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 기조강연은 윤대옥 충북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강연 이후 참가자들은 ▲해양오염과 수산물 안전 ▲일회용품 근절 및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비자운동 ▲지속가능한 사회와 안전한 식품소비 ▲기후위기, 재난상황에서의 소비자안전 등 6개의 세부 주제로 분과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최종 합의된 총 10개의 행동강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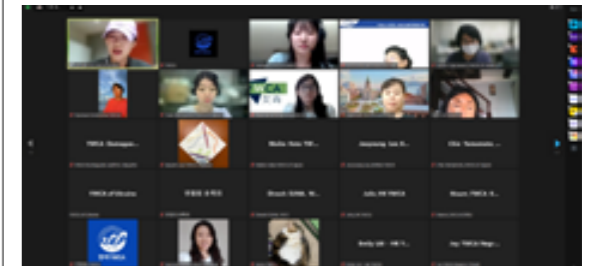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소비자운동 결의문’에 채택됐다.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대정부요구 발표 기자회견



8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923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올해도 오송 지차차도 참가, 폭염 사망 등 기후재난이 현실화된 상황에도 자본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를 비판하며 923기후정의 행진에 이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임을 분명히 하며, 5대 대정부 요구와 14개 세부요구를 발표했다. 요구안의 주요 골자는 기후위기 불평등과 체제전환이다. 유에스더 연합회 활동가는 발언을 통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은 느린 탈석탄과 빠른 핵발전’이라며 이는 ‘기후위기시대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의 부담을 떠넘기는 핵폭주 정책’이기에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긴급 국제 웨비나



연합회는 9월 1일(금) 오후 8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긴급 국제 웨비나(Urgent Crisis Webinar: Japan's Fukushima Nuclear Wastewater Discharge)’를 진행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4일(목) 태평양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투기한 사안을 긴급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본 웨비나에는 한국YWCA 활동가를 포함해 일본, 우크라이나, 필리핀, 홍콩 등 7개국 총 40여 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웨비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 공유 ▲한국YWCA 및 일본YWC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활동 소개 ▲부산YWCA의 현장 목소리 나눔 ▲국제 사회 동참 요청 ▲참석자들의 생각 나눔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한국YWCA와 일본YWCA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과 공동 대응 활동에 대해 공유됐다. 한국YWCA는 추후 일본YWCA 뿐 아니라 세계YWCA,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와의 공동행동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2023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



연합회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이해 9월 6일(수) 온라인에서 '2023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연합회 및 22개 회원YWCA 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했다. 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난주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과 이한빛 연합회 활동가가 발제를 맡았다. 김난주 성평등정책위원은 2023년 지역별 성별임금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한빛 활동가는 국제지표에 따른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했다. 특히 김난주 위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근로 환경 조성과 직접적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

민간단체 폄훼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의원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이혜식(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이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단체 폄훼하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회도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마치 시민사회 전체가 정부부패를 양산하는 집단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부·여당의 보조금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허위 왜곡 주장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보조금 감사 과정과 결과를 특

정 세력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규탄하고 '세부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왜곡·허위 주장에 대한 민간단체 공개반론 토론회



9월 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왜곡·허위 주장에 대한 민간단체 공개반론 토론회'가 개최됐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조사발표를 통해 정부의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의 문제점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의 왜곡·허위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여당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단체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통일문화연합 이경태 대표는 "감사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감사를 실시하였고, 정권퇴진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도 "참여예산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좌파시민단체로 낙인찍으며 시민단체를 이념화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영향력을 발휘해 자체 사업을 선정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본 단체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라고 반박했다.

Y-틴, 916 기후정의 FESTIVAL '기후위기, 우리의 위기' 개최



Y-틴이 9월 16일(토) 서울대학교 마로니에 공원에서 '916 기후정의 FESTIVAL: 기후위기, 우리의 위기'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직접' 기후위기 문제와 기후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것이다. Y-틴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의 관련 OX퀴즈, 청소년 발언, 공연, 넘기 대

회, 피켓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와 놀거리로 행사를 꾸렸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단연 퍼포먼스였다. Y-틴이 923기후정의행진 참가 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 결의를 선언한 후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과 퍼포먼스를 벌였다. 행진을 마친 Y-틴과 시민들은 주변 쓰레기를 줍는 줍깅과 923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붙이는 포스터 액션에도 동참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제4회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경제편) 오리엔테이션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이하 청·만·세) 경제편 오리엔테이션이 9월 16일(토) 온라인(zoom)에서 진행됐다. 청·만·세는 청소년들이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직접 대안을 만들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금융·경제 프로젝트다. 올해 청·만·세에는 총 6개 팀이 참여했다. 청·만·세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약 2개월간 팀 별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간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팀들은 각자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멘토와의 만남도 가졌다. 각 팀의 프로젝트는 11월에 치러질 본 대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정전70년 평화행동 피스먼데이 캠페인 및 유엔 서명 제출



9월 22일(금) 낮 12시 연합회 및 명동성당 앞에서 정전70년 평화행동의 마지막 피스먼데이 캠페인이 진행됐다. 지난 3년간 한국YWCA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및 단체들은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향한 국내외 시민들의 염원을 담기 위해 온라인 및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9월 24일까지 총 206,629명의 서명이 국내 및 해외에서 모아졌다.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대표단은 10월 5일(목) 제78차 유엔 총회 중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의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가 진행 중인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해 유엔 사무처와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20여 만 명의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Korea Peace Appeal)>을 전달했다. 또한, 유엔군사령부 중립국 감독위원회 방문을 비롯해 뉴욕주 및 워싱턴DC 한인동포간담회, 워싱턴 백악관 앞 평화집회 등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기자회견



연합회를 포함한 11개 단체들이 9월 19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11개 단체는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과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인간동물을 모두 포함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기후정의의 담론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 선언문에는 11개 단체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기후대응 정책 젠더 관점 반영 ▲젠더 관점의 정의로운 전환 ▲핵발전 ▲석탄발전 계획 폐기 ▲중평등 사회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언문 전문은 연합회 홈페이지(yw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 YWCA 중견실무활동가 교육



2023년 YWCA 중견실무활동가 교육이 9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3 YWCA 중견실무활동가교육'은 10년 만에 재개되는 교육으로, 회원YWCA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전국의 중견실무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총 18개 회원YWCA(고양Y, 광주Y, 남양주Y, 대구Y, 목포Y, 서귀포Y, 서울Y, 성남Y, 세종Y, 순천Y, 안동Y, 울산Y, 제천Y, 진주Y, 천안Y, 청주Y, 충주Y, 포항Y)의 중

건설무활동가 26명이 참석했다.

2023 YWCA 증건설무활동가교육은 '쉽'을 주제로 각각 '성찰의 날', '쉽과 재충전의 날', '비전의 날'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증건설무활동가들은 '2023 YWCA 증건설무활동가교육'을 증건설무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통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1993년 한국 반핵운동 진영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아시아 지역 반핵·탈핵운동 네트워크인 NNAF(No Nukes Asia Forum)가 30주년을 맞아 2023년 한국에서 개최됐다. 2023 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화)~23일(토)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서울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 호주 등의 활동가들이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 연합회는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로 참여했고, 부산YWCA와 울산YWCA는 각 지역 조직위원회로 함께했다.

포럼에 참가한 아시아 활동가들은 고리핵발전소, 월성핵발전소, 삼척원전백지화기념탑 등 한국의 탈핵운동현장을 방문하고 한국 지역 및 아시아 각국의 반핵·탈핵운동 현황을 공유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했다. 2023 반핵아시아포럼은 오는 10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며 기후정의를 위해 탈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반핵아시아포럼은 2025년 대만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28쪽)

923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서울 시내 일대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923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 9월 23일(토) 오후 12시 서울 세종대로(시청역 7번 출구~승례문)에서 진행됐다.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재난의 시대에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후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행진이다. 한국 YWCA는 주최단체로 행진 준비의 시작부터 함께했다. 행진 당일에도 연합회를 비롯한 13개 회원YWCA(고양, 광주, 남양주, 대전, 부천, 서울, 성남, 안산, 의정부, 전주, 청주, 충주, 하남YWCA)가 행진에 나섰고, 30명의 Y-틴을 포함해 총 150명이 함께했다. 한편 Y-틴은 사전행사에 참여해 '나는 어떤 기후활동가? 기BT' 부스를 운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복지사업단 일본연수



'YWCA복지사업단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TF' 위원과 은학의집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10여 명이 9월 26일(화)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YWCA복지사업단 역할 기능 전환 방안 마련 및 YWCA은학의집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단은 일본노인주거시설 중 '도쿄 컬렉티브하우스 스가모플랫', '카나가와현 그룹리빙홈 코코쇼난다이'를 방문해 NOP 법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일본의 주거형태 변화와 특징 등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주간보호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요코하마시 시노하라 케어 플라자'도 방문했다. 연수단은 요양시설이 거주자들에게 의료 및 개호, 예방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 체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연수단은 이외에도 도쿄 빅사이트에서 진행 된 '2023 일본 도쿄 국제 홈 케어 및 재활 박람회(HCR 2023)'에 참가해 고령친화산업의 흐름과 노인복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다. (자세한 내용은 46쪽)

우리가족금융경제교육 with 스테이

연합회는 9월 2일(토)부터 10월 8일(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YWCA우리가족금융경제교육 with 스테이(슌+STAY)가 열렸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9월)과 가족캠프(10월)가 진행됐다. 연합회는 금융·경제교



육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대상별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했다. 부모에게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무설계 및 노후관리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

다. 자녀에게는 씽크머니 펄핀 프로그램과 핀테크 금융·경제교육, 기후와 경제(인간)를 주제로 한 금융·경제교육 등을 제공했다. 가족캠프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체험 및 지역관광, 만들기 체험 등을 준비해 가족 간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YWCA 100년, 돌봄운동의 역사' 세미나

연합회는 'YWCA 100년, 돌봄운동의 역사-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진행된 '한국YWCA 100주년 기념, YWCA 역사포럼'에 이어 YWCA 운동



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돌봄운동에 대해 운동사적 의미를 성찰하고 향후 돌봄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은영(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YWCA 돌봄운동이 YWCA 설립 초기부터 산업화 시대의 '파출부 훈련'에 이어 여성인력개발센터까지 여성직업훈련에 선두적인 역할을 했으며,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내까지 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1 ~ 2023.10.2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고이나 구정혜 권남 김덕점 김병찬/임정임 김선숙 김은경 김형남 나신숙 류경화 류춘지 박은숙 백은미 서금순 신성균 신희자 신화정 안병미 안정희 오대근 오순숙 오초녀 윤수정 이선업 이상란 이숙현 이영순 이예린 이종임 이종경 이주영 안정란 장성영 정용아 정은하 정현주 조영미A 조영미B 차경애 편옥순 하미용 하행여	2,740,000
단체	남양주YWCA 목포YWCA 부산YWCA 서울YWCA 세종YWCA 순천YWCA 안동YWCA 울산YWCA 천안YWCA 포항YWCA 하남YWCA 대상 생표 한솔사무기기 홀플러스 CJ제일제당	7,400,000
기타	NS홈쇼핑 바자회 수입	3,168,000
합계		13,458,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3.8.1. ~ 2023.9.3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차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성민 박용순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해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민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연규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민 이지윤 이진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에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허만성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2,913,240
단체	예수비전교회 유아부	273,810
합계		3,187,050

YWCA 흥청망청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1 ~ 2023.10.20)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고미연 구정혜 김미경 김민승 김인호 김주영 김종희 김지영 나길선 박윤애 배정미 배한솔 서다미 송록희 윤정향 이은영 이혜련 조은영 조은지 장승호 정형미 정석민 정혜원 조영민 한영수 함희경	5,496,000
단체	김필레기념사업회 (주)럭스나인 한국YWCA연합회 직원회	3,317,500
합계		8,813,500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최경선 간사

캠페인 “애들이 아침먹자!” 진행



(사)강릉YWCA는 8월 31일(목) 강일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강릉YWCA봉사자가 모여 “애들이 아침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애들이 아침먹자!” 캠페인은 강릉YWCA가 강릉원주대학교 지역참여 예산제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꿈꾸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첫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은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게 함으로써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됐다. 강릉YWCA는 캠페인 당일 학생들에게 꿀떡과 주스, 후원 받은 요구르트를 나누며 강릉YWCA를 알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제공했다. 한편, 강릉YWCA는 꿈꾸는 청소년 프로젝트를 통해 ‘찾아가는 환경프로그램’을 3회 진행하고 강릉YWCA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비누 만들기 체험을 두차례 진행했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YWCA환경지킴이 9월 환경정화활동 실시



(사)동해YWCA는 동해YWCA환경지킴이와 함께 9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 평릉동 남호초 부근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동해YWCA는 지난 5월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치른 이후 매일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9월 활동에 참여한 환경지킴이들은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을 줍는 활동을 벌였다. 동해YWCA는 이후에도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성평등한 방송통신 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



(사)서울YWCA는 8월 23일(수) ‘성평등한 방송통신 심의를 고민하는 시민 공론장 - 그 심의 결과, “문제 있음”을 서울YWCA회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시민과 함께 방심위의 성평등 인식을 살펴보고, 방송통신 심의 규정의 적용과 쟁점, 평등 방송심의 현실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조혜원(서울YWCA) 활동가와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 김언경(미디어인권연구소 ‘몽클’)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발제 후에는 워크숍이 이어졌다.

(사)속초YWCA

김다미 간사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속초지역 도보순례



(사)속초YWCA는 8월 29일(화)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속초지역 도보순례를 진행했다. 이번 도보순례

는 전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진행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도보순례’ 강원지역 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초성암교회→속초시청→동명항 약 3.2km를 걷는 일정이다. 속초YWCA가 연대하고 있는 강원기독교연합회 도보순례자들(속초환경연합, 속초한살림, 설악포럼 등 11개 단체 연대)과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속초공동행동이 이번 순례를 진행했다. 순례에 참여한 속초YWCA 활동가들은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일 땐 울컥한 감정이 들었다고 전했다.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2023 사단법인 창립기념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바자회



(사)원주YWCA는 9월 15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원주YWCA에서 이사회 주최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최현영 목사의 축사 예배로 시작된 이번 바자회는 지난 7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청소년 시설 리모델링 등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준비됐다. 먹을거리부터 각종 생활용품과 의류 등 다양한 후원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바자회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진행됐지만, 지역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인천YWCA

서에스터 간사

2023 인천광역시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인천YWCA는 8월 26일(토) 오후 2시 인천 구월 로데오 광장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우리의 꿈이 모여 미래가 된다! 꿈·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어울림마당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이 행사 기획부터 사회, 부스 프로그램 운영, 무대 공연까지 모두 주체로 활동했다.



행사 당일 9개 청소년 동아리가 밴드와 댄스, 사물놀이 등의 공연을 선보임은 물론 퀴즈 등의 오락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서는 청소년이 여러 진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4개의 진로·직업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조항사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향수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과학사 체험 부스에서는 ‘병아리 로봇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칠전동이 좋다’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사)춘천YWCA는 9월 22일(금) 오후 3시~5시 30분 칠전동 마을돌봄교육공동체와 마을공동체 드림지기가 주최하는 축제 ‘칠전동이 좋다’에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나눔장터를 비롯해 체험부스, 마술쇼, 야외영화상영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춘천YWCA는 행사 당일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캠페인’을 벌였다. 어린이들이 페트병 뚜껑 20개를 가져오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샴푸 바로 교환해주었다. 또한 환경에 이로운 EM(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 중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을 체험하고 알릴 수 있도록 ‘EM체험부스·고체치약만들기 및 EM발효액 무료배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제11회 고양여성영화제 '여성, 역사와 마주하다'



(사)고양YWCA는 지난 9월 13일(목)~20(화) 일산CGV, 백석CGV,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11회 고양여성영화제 '여성, 역사와 마주하다'를 개최했다. 제11회 고양여성영화제는 여성의 삶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자 기획됐다. 총 700여 명이 영화제를 찾았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디지털성폭력, 임신중절, 기후위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여성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 가족, 여성의 노동 등 다양한 여성 이슈를 담은 작품이 소개됐다. 고양YWCA는 영화 상영 후 영화 해설 또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관객들이 영화를 입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했다. 영화 해설에는 영화평론가, 여성주의 전문 강사, 현대미술가 등 각 영화에 맞는 해석을 들려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영화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고양여성영화제가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했고, 자신을 남성페미니스트라고 밝힌 한 시민은 "영화제를 통해 고립이 아닌 연대의 힘을 느꼈다"고 전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에너지날 기념포럼 '함께 나누는 에너지 이야기' 개최



광명시민들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광명YWCA는 8월 17일(목)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에너지 날 기념포럼 '함께 나누는 에너지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포럼 1부에서는 이차경(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이 '기후위기와 미세플라스틱, 우리의 실천행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영경(에너지 연대) 사무국장이 '기후와 에너지'를 주제로 한 수다회를 가졌다.

한편, 광명YWCA는 포럼 이외에도 에너지의 날을 기념해 8월 18일(금)에는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에너지의 날-언플러그 광명, 에너지 줄이는 나의 하루!' 행사를, 8월 30일(수)에는 철산역 로데오광장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과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광명시민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남양주시 양성평등주간행사에서 양성평등 캠페인 진행



(사)남양주YWCA는 9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남양주양성평등주간행사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며 양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이 양성평등 개념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놀거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활동가들은 부스 내에 양성평등 그림책을 전시해, 양성평등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도왔다. 또한 양성평등 가로세로 낱말퀴즈로 퀴즈를 풀며 성인지 감수성을 익히도록 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기념해 만든 카드뉴스도 한쪽 구석에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했다.

(사)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책, 갈피에서 여성을 찾다.

(사)부천YWCA는 9월 2일(수) 부천 중앙공원에서 열린 부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로드, 연결로'에 참여했다. 부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부천시 여성단체연합이 개최했다. 부천YWCA는 이번 행사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문장'을 발췌해 책감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과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인식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책감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1월부터 성평등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월간와이북클럽'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꾸려졌다. 월간와이북클럽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여성인식 설문조사에는 총 90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응답자 중 40대와 50대, 60대 비율이 29%, 24%, 22% 등 고르게 높았고 20대는 7%, 30대는 13%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74%), 여전히 성불평등이 존재하며(86%) 여성의 사회적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68%)고 답했다.

(사)성남YWCA

임은희 간사

상희공원음악회 사전행사 참여해 친환경 캠페인 진행



(사)성남YWCA는 9월 8일(금) 오후 3시~5시 반 분당구 야탑3동 상희공원에서 개최된 제19회 상희공원음악회 사전행사에 참여해 친환경 캠페인을 벌였다. 음악회를 찾은 시민들에게 EM의 효험을 알리며 지역 하천 보호를 위해 EM 제품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성남YWCA는 또한 시민들이 직접 EM애플워시 클

렌징 폼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EM발효액과 EM때비누 등을 증정했다.

(사)수원YWCA

정혜진 간사

2023 탄소중립DAY!



(사)수원YWCA는 9월 23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사)수원YWCA 회관 일대에서 '2023 탄소중립DAY!'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 양성평등, 인권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와 추억의 먹거리 부스(떡볶이, 순대 등), 후원 바자회, 시민 참여형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다.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아나바다 장터가 오랜만에 열렸는데 총 9팀이 의류, 생활용품, 책가방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이번 탄소중립DAY!에서는 추억의 놀이와 탄소 중립 교육 내용을 결합한 '탄소중립운동회' 체험 부스(탄소중립 비석치기&과녁놀이)도 운영됐다. 탄소중립 실천 리스트를 전통 놀이를 통해 익히는 게임도 마련됐는데 모든 연령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수원YWCA에서 사전에 공지한 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환경운동을 함께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년보다 많은 약 5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Y-틴 환경동아리 '지키자', 4.16청소년문화제 부스 참여



(사)안산YWCA Y-틴 환경동아리 '지키자(지구를 지키고 아끼자)'는 9월 9일(토)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내에서 개최된 '제5회 4.16청소년문화제'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4.16청소년문화제는 세월호참사로 인해 희생된 단원고 250명 학생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안전한 세상에서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4.16재단의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Y-틴 '지키자'는 행사장 부스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와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라는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크릴 무드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부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주인공' 행사의 취지에 맞게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두 Y-틴이 맡았다. 행사 이후 한 Y-틴은 "스스로 체험부스를 운영해 뿌듯했고,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로 부터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방민영 간사

2023년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법인영성훈련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9월 12일(화) 오전 9시 안양YWCA 5층 강당에서 이사, 위원, 실무자, 회원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법인영성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장운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및 목교) 목사가 '에큐메니컬 신앙과 안양YWCA 사명'을 주제로 강의했다. 장운재 목사는 "에큐메니컬은 '사람이 사는 온 누리'를 뜻한다"며 교회의 '하나 됨'과 교회의 '교회됨'을 성서 말씀을 인용해 이야기했다. 안양YWCA는 이번 법인영성훈련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과 나라, 온 세계 안에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전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에큐메니컬 신앙과 운동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의정부YWCA 김윤숙 간사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사)의정부YWCA는 9월 11일 의정부 부용초등학교에서 '내 소



비가 환경을 바꾼다고?'를 주제로 씽크머니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와 환경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며 자신의 소비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부용초 5학년생 119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3차로 구성됐다. 1차 교육에서는 소비와 환경의 연관관계 학습을, 2차 교육에서는 실천 활동 발표와 피켓 제작을, 3차 교육에서는 캠페인 피켓 발표가 진행됐다. 의정부YWCA는 일회용품 과다 사용과 소고기 과다 섭취 습관이 자원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자원 절약과 친환경적인 소비 습관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소비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대나무 칫솔과 실리곤 빨대도 증정했다.

(사)하남YWCA 김예진 간사

(사)하남YWCA 시화전 개최



(사)하남YWCA는 9월 4일(월)~8일(금) 5일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시화전을 열었다. 이번 시화전은 경기도민이 출품한 시, 그림, 캘리그래피 작품을 전시한 것으로, 2023년 경기도 공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시장은 여러 연령대의 도민들이 내놓은 다양한 작품들로 채워졌다. 성인들이 내놓은 그림과 시, 캘리그래피 외에도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200여 개 어린이들의 그림이 공간에

자리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8일(금) 오후 3시에는 시상식이 열렸다. 성인부문에서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이, 어린이 부문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됐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양성평등 주간행사 '다름알음 양성평등 놀이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성평등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가 마련됐다. (사)논산YWCA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9월 7일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다름알음 양성평등 놀이터'를 개최했다. 논산시 3개 어린이집(우리, 프라임세도, 작은별)의 아동과 부모 2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다름알음 양성평등 놀이터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양성평등 인형극 '최고가 되고 싶은 까마귀'가 상연됐고, 2부에서는 양성평등 퍼포먼스 '고정관념 풍선 폭탄 터트리기' '아빠는 청소년 주부로 변신한 아빠'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부 퍼포먼스 '고정관념 풍선 폭탄 터트리기'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박으로 형상화해 이를 깨트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논산YWCA는 참가자들이 놀이를 통해 양성평등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영민(논산YWCA) 부회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 책임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다"며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제28회 대전여성포럼

임신한 직장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대전YWCA는 9월 6일(수) 오후 2시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직장인 여성이 임신으로 겪는 불평등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28회 대전여성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혜원(대전YWCA)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배지연(대전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혜영(대전광역시가족센터) 센터장, 김난희(노무법인 강산) 대표노무사, 김민숙(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정아라 시민(직장인) 등이 나섰다. 패널들은 직장인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승진 누락, 해고, 여성에게 치우친 육아 문제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신, 출산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외 예방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남성을 기본 값으로 하는 노동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한 직장인으로 나선 정아라 씨는 "직장인 여성이 임신으로 겪는 불평등이 없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세종시 양성평등 주간행사에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 부스 운영



성별 임금 격차 0%가 되는 세종시를 만들자! (사)세종YWCA는 9월 2일(토) 오후 2시 세종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2023년 세종시 양성평등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양성평등 임금의 날'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부스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어떻게 성별 임금 격차 0%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만들어졌다. 세종YWCA 활동가들은 세종 시민들에게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평균임금, 연령별 월 평균 임금, 지역별 임금 성별 격차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부스 내 배치했다.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나트륨·당류 줄이기' 청소년 교육 진행



(사)제천YWCA는 9월13일, 19일, 20일, 21일 4차례에 걸쳐 다음 세대돌봄센터와 제천시청소년센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 163명을 대상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청소년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준비했다.

이날 교육은 당과 나트륨에 관한 이론 수업과 이를 바탕으로 건강 햄버거를 만들어보는 실습수업으로 꾸러졌다. 이론 수업에서는 당과 나트륨 역할과 당과 나트륨 과잉 섭취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1일 섭취 권고량, 올바른 나트륨·당류 저감화 실천법에 대해 교육했다. 제천YWCA는 이외에도 교육장 안에 청소년들이 평소 즐겨 먹는 과자, 음료, 라면의 식품영양성분 및 소금, 설탕 함유량을 전시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나트륨·당류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2023 양성평등 임금의 날 피켓캠페인

(사)천안YWCA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인 9월 7일(목) 오후 4시 충무로 일봉육교에서 여성의 임금차별을 줄이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을 펼쳤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의 마지막 날로 2020년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기준 정



규직 남성이 1년간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정규직 여성이 받는 임금은 69.1에 불과하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30.9%에 달하는 것이다. 천안YWCA는 남녀 노동자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해 이날 캠페인을 벌였다. 추후에도 '남녀임금차별 NO!'를 외치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청주YWCA

이드림 간사

여권통문의 날 기념, 평등 메시지 담은 합창 선보여



(사)청주YWCA는 9월 1일(금) 여권통문 발표 125주년을 기념해 열린 '충북 성평등 한마당 축제'에서 9-1 합창단과 함께 합창 무대를 선보였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여권통문은 여성과 남성 간 참정권, 직업권, 교육권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YWCA는 이날 '평화를 위해', 'Let it be',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등 3곡을 준비했다. 시민들에게 익숙한 멜로디에 여권통문 내용과 평등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새로 입혀 노래했다. 여성 인권을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차별적 현실에 맞서야 하지만 지지 말고 잘했다 토닥이며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해 힘 있게 나가자는 마음을 표현했다.

(사)충주YWCA

김성화 간사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RE100환경캠프'

(사)충주YWCA는 Y-틴 '늘봄누리'와 함께 8월 9일(수)-10일(목)



1박 2일 동안 소백산 생태탐방원에서 RE100환경캠프를 진행했다. YWCA 청소년 회원인 Y-틴 '늘봄누리'가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했다. 캠프에는 충주시 초·중·고생 34명이 모였다. RE100환경캠프는 토론과 교육, 체험, 탐방,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토론 시간에는 참여 청소년들이 ▲친환경 소비의 이해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바른 소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생태교육에서는 기후위기와 친환경 소비생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고, 체험 시간에서는 청소년들이 EM샴푸 바를 제작하도록 했다. 환경을 주제로 한 골든벨과 미니운동회로 채워진 환경올림픽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정의인 간사

해양환경개선 캠페인 '클린(clean) 거제, 클(grow) in 거제'



(사)거제YWCA는 8월 14일(월) 휴가철을 맞아 구조라해수욕장과 와현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개선 캠페인 '클린(clean) 거제, 클(grow) in 거제'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재단이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바다쓰담 캠페인

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해양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거제YWCA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해양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며, 관련 홍보물품을 제공해 시민들이 환경운동을 생활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배부해 관광객들이 해양관광을 즐기는 동안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했으며, 사위장 이용객들에게 친환경 세제를 나눠 주어 수질오염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다회용 장바구니를 제공해 각 가정에서 비닐 사용을 줄여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바다환경을 위해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김해YWCA

배정숙 부장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마당 개최



(사)김해YWCA는 지난 6월 3일 김해 화정공원에 이어 9월 9일 연지공원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 참여마당'을 진행했다. 이번 참여마당에서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보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했다. 아나바다 장터에는 30여 개 팀의 시민들과 여성 소규모 창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마당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체험교육과 환경퀴즈대회, 플라스틱업사이클링 제품 및 천연수세미 제작 체험과 환경사랑 송 플래시몹 등이 진행됐다. 김해YWCA는 2회째 진행되는 참여마당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제로웨이스트 생활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기대했다.

(사)대구YWCA

박선혜 간사

(사)대구YWCA 창립 100주년 기념 '생명의 바람, 생명순례 챌린지' 진행



(사)대구YWCA는 지난 5월부터 위원회를 중심으로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생명의 바람, 생명순례 챌린지'를 진행했다. 창립 100주년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다.

릴레이의 스타트는 5월 회원위원회와 사회개발위원회가 꾸린 '100인 생명순례 챌린지 걷기대회'가 끝났다. 대구 시민들은 걷기대회를 통해 환경운동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6월에는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가 대구지역 여성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실천 다짐'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위원회가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는 달서나눔장터와 함께하는 '아나바다'를 주제로 자원 재활용과 선순환에 관한 행사를 개최했다. 7월에는 달서구남자단기청소년센터위원회가 '3GO(줍GO, 지키GO, 살리GO) 생명챌린지'를 진행했다. 3GO 생명챌린지를 통해 폐박스와 페비닐을 재활용한 바구니를 제작했으며, 달서구 학산공원 일대에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에게 활동 취지를 알리는 행사 또한 운영했다. 9월에는 대구YWCA재가노인돌봄센터위원회가 '내가 그린(Green) 대구, 함께 그린(Green) 대구'를 주제로 어르신들과 함께 EM 흙공을 만들어 신천강 정화 활동을 벌였다. 10월에도 청소년위원회가, 11월에는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위원회가 생명순례 챌린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2023 경상남도 양성평등주간 문화마당 체험행사 '양성평등 ON+ON'

(사)마산YWCA는 9월 5일(화) 오후 2시에 진행된 경상남도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체험행사 '양성평등 ON+ON'을 개최했다. 양성평등 ON+ON은 양성평등을 ON+OFF하지 않고 계속 'ON'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꾸러졌다.



마산YWCA 활동가들은 기념식장에 포토존을 만들어 기념식에 참가한 도민들이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당신은 경상남도의 미래입니다'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의 의지를 표명토록 했다. 대형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도 준비했다. 양성평등 문구를 적어보는 아크릴 무드등, 드라이플라워 석고방향제, 감성 도어벨, 우드링 열쇠고리 등을 제작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양성평등 인식조사, 꽃팔찌 나눔 등도 마련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923기후정의 행진 in 부산, 경남



"위기를 넘는 부산, 경남의 힘" (사)부산YWCA는 9월 23일(토)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부산, 경남 시민과 함께 '923기후정의 행진 in 부산, 경남'에 참여했다. 부산YWCA는 '923기후정의행진 in 부산, 경남' 추진위원으로 준비과정부터 함께했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부터 서면천우장까지 "위기를 넘는 부산, 경남의 힘" 구호를 외치며 걸었다.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기후정의 메시지를 담아 개사해 부르기도 했다. 참여자는 구호와 노래로 목소리를 높이며 기후정의 실현이라는 희망을 표했다. 한편, 부산 Y-틴은 사전행사인 부스프로그램에서 대학생 자원활동가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행진에 참여한 부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사천YWCA

송주은 간사

추석 명절맞이 바자회 & 일일카페 운영



(사)사천YWCA는 9월 9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사천읍교회 비전홀 및 주차장에서 목적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추석 명절맞이 바자회 & 일일카페'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사천YWCA의 이사, 본부 직원 및 부속시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약 300여 명의 지역사회 회원과 시민들이 행사를 방문했다.

사천YWCA는 사천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시대, 현명한 소비'를 주제로 아나바다 장터, 리사이클 전시회, 먹거리 장터, 명절선물코너, 일일카페 등을 운영했다. 사천 시민들에게 사천YWCA 활동을 알리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생활 등을 홍보했다.

(사)안동YWCA

남수정 부장

바른 분리수거 자원순환 캠페인



(사)안동YWCA 회원 위원회는 8월 25일(금) 오전 10시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안동시민과 상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바른 분리수거 신나는 불편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정과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구별하기 힘든 재사용 가능한 쓰레기의 종류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들어간 홍보물을 나눠 줌으로써 바른 분리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또한 '재사용'과 '재활용'의 차이점에 대

해 소개한 후 재사용 가능한 쓰레기를 구별하는 게임과 퀴즈를 마련해 기념품을 증정했다.

안동YWCA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우유팩과 투명 페트병 등을 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환경강사를 통해 안동시민이 바른 분리배출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양산 여성시민정책 토론회



(사)양산YWCA는 8월 30일(수)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양산 여성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지정토론에서는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가 8명이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돌봄·안전·환경·일자리 등에 대해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초저출산 문제와 영유아 돌봄 ▲노인보호구역 안전 ▲지구를 살리는 빈그릇 운동 ▲위킹맘 현실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진 2부 라운드토론은 돌봄과 안전, 환경, 일자리 등에서의 문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불편과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각 분야 문제를 공론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필수"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함께 여성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탄소중립실천 활동가 양성 사업 'WITH SAVEARTH'



(사)울산YWCA가 탄소중립실천 활동가 양성사업을 시작했다. 탄소배출 저감 및 환경보호를 실천해나갈 활동가를 양성해 RE100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다. 활동가 양성사업은 울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 9월 7일(목)부터 11월 2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울산시민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울산YWCA는 9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YWCA 2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발대식에는 YWCA 임직원 및 탄소중립센터 부회장, 활동가 15명이 함께했다. 탄소중립실천 활동가 양성사업은 ▲탄소중립 실천방법 ▲기후변화 위기대응 ▲에너지 전환 등 3가지 주제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꾸려진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922진주기후대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사)진주YWCA는 9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앞에서 개최된 922진주기후대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에 참여했다. 진주YWCA를 비롯한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 13개 단체와 갈전초, 관봉초, 대곡초 학생과 학부모, 교사 200여 명이 922진주기후대행진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진주기후대행진은 작년에 이어 지역 초등학교들이 다수 참여했다. 기후위기 세대로 불리는 초등학교생들이 922기후정의선언식 사회를 맡고, 발언과 공연을 이어나갔다. 기후정의

선언문도 초등학교생 대표자 8인이 낭독했다. 기후정의선언문은 진주시의회 강진철 도시환경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기후정의선언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행진 대열에 맞추어 진주시청광장→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일호광장(구 진주역) 구간을 행진했다. 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후정의 메시지를 담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지역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관심과 연대를 부탁했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증경회장단 주관 기도회



(사)진해 YWCA는 9월 12일(화) 오후 12시에 증경회장단 주관으로 식사교제와 명예 이사들과 현 이사들이 함께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진해YWCA가 사단법인으로 출발하면서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감을 재확인하고, 진해YWCA의 정체성 회복과 자원활동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간구했다. 또한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와 회원 중모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열심을 낼 것을 다짐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것들을 하나둘 회복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가 필요함을 상기하며 정기적인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도 홍보 캠페인



(사)창원YWCA는 9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여성회관 창원관~가음정시장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농산물에 안전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GAP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관리, 유통

단계에서 농업환경(토양·수질 등)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을 중점 관리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창원YWCA는 'GAP 소비자 리더 육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8월 31일과 9월 15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GAP 홍보 및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자원순환 & 제로웨이스트 체험교육



사단법인 통영YWCA는 7월 27일-10월 26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해 "찾아오는 자원순환 & 제로웨이스트 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찾아오는 자원순환 & 제로웨이스트 체험교육은 2023년 경상남도 민간단체환경보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총 20회기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7회기 교육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통영YWCA는 시민들이 유아기 때부터 기후위기를 자각하고 기후정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 현재까지 총 400여 명의 유아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 내용 또한 우유팩, 멸균팩, 종이가방, 아이스팩, 폐건전지 분리배출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됐다. 통영YWCA는 추후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운동과 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사)포항YWCA

김민경 간사

(사)포항YWCA, 2023년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

(사)포항YWCA가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2023년도 포항시 양성평등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성평등상 시상식은 9월 1일(금)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24회 세오녀문화제에서 진행됐다.



포항YWCA는 1979년 여성운동의 불모지인 포항에 설립돼 44년간 여성이 주체가 되어 정의·평화·생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을 향상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평등한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지속 가능한 환경과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실천해 왔다. 포항YWCA는 양성평등운동, 생명환경운동, 소비자운동을 기반으로 경력 단절여성 취업 기회 확대 등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폭력 근절 및 폭력 피해 여성 권익 증진과 여성 권익증진 및 지위 향상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바가지요금 근절에 따른 물가안정 캠페인 진행



(사)광양YWCA는 8월8일(화) 광양시 관내 4대 계곡 산장에서 광양시청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에 따른 합동점검과 물가안정 캠페인에 나섰다. 이날 캠페인에는 윤지영 광양YWCA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광양시청 공무원,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올해 8월 여름 휴가철에는 코로나19 해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광양 4대 계곡 등지를 찾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계곡에 위치한 산장을 찾아 시민들과 관광

객들에게 '물가안정 동참' 전단지 배부했고, 가격표시제 준수 등 자발적인 물가안정 동참을 당부했다.

(사)광주YWCA 오희경 국장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열려



(사)광주YWCA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해 9월 1일(금)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기념행사에는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광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 '성차별 뿌셔 뿌셔, 양성평등 퍼즐 완성'으로 시작됐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개회사, 축사 등이 이어졌고, 성평등 8대 실천과제 릴레이 다짐을 위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홍보 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사전 신청한 광주시민 30명을 대상으로 한 '울려라! 양성평등골든벨'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캘리그라피 양성평등 가훈 만들기, 행복한 아빠의 육아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광주지역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25개 업체가 참여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여성일자리박람회도 함께 운영됐다.

(사)군산YWCA 황수미 팀장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토너 만들기' 진행



(사)군산YWCA에서는 9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군산YWCA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토너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상황 속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군산YWCA는 강좌를 통해 회원들에게 플라스틱 용품이 아닌 생분해가 가능한 제품이나 천연소재 제품, 수질정화의 일원인 EM(유용한미생물)제품들을 사용하도록 권했다.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사)남원YWCA는 9월 12일(화) 아동·여성 및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남원용성고등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남원YWCA통합상담소, 남원시청,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등 10개 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남원용성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원YWCA는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아동과 여성,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했다. 또한 캠페인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폭력 피해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홍보 물품을 전달해 폭력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2023년 이사·직원연수 실시!



(사)목포YWCA는 8월 28일(월) 오후6시 목포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이사와 본부 및 전 부속시설 직원 총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이사·직원 연수를 시행했다. 이번 연수는 '에큐메니컬 신앙과 목포YWCA 사명'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의 주제 강연은 정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목포YWCA 임직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YWCA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YWCA가 탄생부터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앙의 눈으로 세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서귀포YWCA 김지희 팀장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RE100 워크숍 개최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9월 19일(화) 오전 서귀포YWCA 회관에서 (사)서귀포YWCA, (사)제주YWCA 이사 및 실무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RE100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2-2023 중점운동에 대한 평가와 2024-2025 중점운동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운동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명수(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대표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김동주(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 팀장이 '제주지역 에너지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이후 탈핵기후생명운동에 대한 제주지역 의제발굴을 위한 워크숍이 마련돼 도협의회 차원의 향후 운동과제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워크숍을 마치고 서귀포YWCA회관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가두캠페인이 진행됐다.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제주도 내 활동하는 서귀포YWCA와 제주YWCA 연대 협의회로 제주지역 여성운동 활성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사)순천YWCA 키다리학교, 연대활동 통한 기후정의 실현
(사)순천YWCA 키다리학교는 (사)목포YWCA 키다리학교와



함께 9월 9일(토) 순천만국제제정원박람회장에서 '지구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쓰레기 없는 여행(쓰.없.행)'을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상생활 속 무심코 배출되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며, 여행 중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법을 익히는 등 기후 위기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키다리들은 박람회장 내부를 둘러보며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단어 찾기', '눅고 있는 해빙 위의 황제펭귄 인종샷 찍기', '지구의 역사와 생태가 펼쳐지는 탐험길 체험'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일회용품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하고, 배출된 쓰레기는 장바구니에 담으며, 손 선풍기가 아닌 부채를 사용하며 프로그램에 임했다.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LG화학과 함께하는 '날아라 희망공'



(사)여수YWCA는 8월 12일(토) LG화학 여수공장과 함께 여수시 연등천(광무동 인근)에서 'EM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했다. EM 흙공은 황토에 EM발효액을 섞어 반죽한 후 발효시킨 것으로 하천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해 수질 개선과 하수 유입으로 오염된 하천의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날 준비된 EM 흙공은 참가자들이 EM발효액과 황토로 만든 것으로 약 2주간 숙성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숙성된 흙공을 하천에 던졌다.

행사에는 여수YWCA 청소년과 직원 및 LG화학 직원 약 70명

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흙공 약 1,000개를 연등천(광무동 인근)에 던진 후 LG화학 공장을 투어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EM흙공에서 숙성된 미생물이 하천을 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어 뜻 깊었다.”고 전했다.

(사)익산YWCA 강지수 간사

(사)익산YWCA 일일찻집·바자회



(사)익산YWCA는 8월 31일(목) 익산시 중앙동 하늘정원카페에서 익산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 및 바자회를 개최했다. 바자회 판매 품목으로는 액세서리와 수제 장류, 지역에서 공수한 포도 등 40개 품목에 달했다. 일일찻집에서는 수제 대추차와 커피, 베이커리, 주먹밥 등이 세트메뉴로 구성돼 판매됐다. 행사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익산YWCA 회원들과 익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4기 장애인장학사업 '드림, 액션!' 공모전



(사)전주YWCA 장애인사업위원회에서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기 청(소)년 장학사업으로 활동공모전 ‘드림,액션’을 진행하고 있다. ‘드림, 액션’은 지역 청(소)년들이 장애인 선생의 뜻을 계승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청(소)년 팀은 ▲기후·환경 ▲성평

등 ▲평화통일 ▲사회봉사 등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해 2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심사받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후·환경 4팀, 성평등 1팀, 사회봉사 2팀 등 총 7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전주YWCA는 7월 29일(토)에 1차 사업설명회를 열고, 9월 12일(화)에는 2차 중간모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두 모임을 통해 ‘거리의 성자’ 고(故) 방애인 선생을 알아가고 팀별 활동주제와 목표,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1월에는 2개월간의 팀별 활동을 마친 청(소)년들이 최종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활동보고대회가 열린다. 활동보고대회에는 우수팀 시상상을 통해 약 32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2023년 제2차 (사)제주YWCA 실무자 연수 참여



(사)제주YWCA는 9월 15일(금)과 16일(토) 양일간 제주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숙소를 중심으로 제주시내 일대에서 ‘2023 제2차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2차 실무자 연수에는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지만 만남의 기회가 적고 그만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에 친목도모 및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Y법인사무국과 부속시설 사업단 소속 50여 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2차 연수에서는 제주YWCA 대표 키워드를 이용한 조별 미션 수행과 동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다. 연수 첫날에는 대표 키워드를 통한 조별 미션 수행, 관련 동영상 제작,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동백동산 숙소 근처 오름등반 후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실무활동가는 “1차 연수와 다르게 1박 2일로 진행돼 좋았다”, “자연과 어우러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조별 미션을 통해 동료 활동가들과 친해져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협하는 불법개설 기관이란?

영리추구 목적으로 의사(약사)가 아닌자가 의사(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기관 폐해 재정누수,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생태계 파괴 이러한 폐해 근절을 위해 제도 도입 필요

재정누수

국민 건강권 위협

의료생태계 파괴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안내



(안드로이드용) APP QR 코드

홈페이지

- ① 홈페이지 ② 민원 여기요 ▶ ③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④ 불법개설기관 신고 ▶ ⑤ 불법개설기관 신고하기

모바일앱

- ① 모바일앱(The건강보험) ② 고객센터 ▶ ③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④ 불법개설기관 신고 ▶ ⑤ 신고하기

※ 불법개설기관 신고포상금 요양기관 종사자 최고 20억원 일반인 최고 500만원
※ 방문,우편,팩스를 통해서도 가능